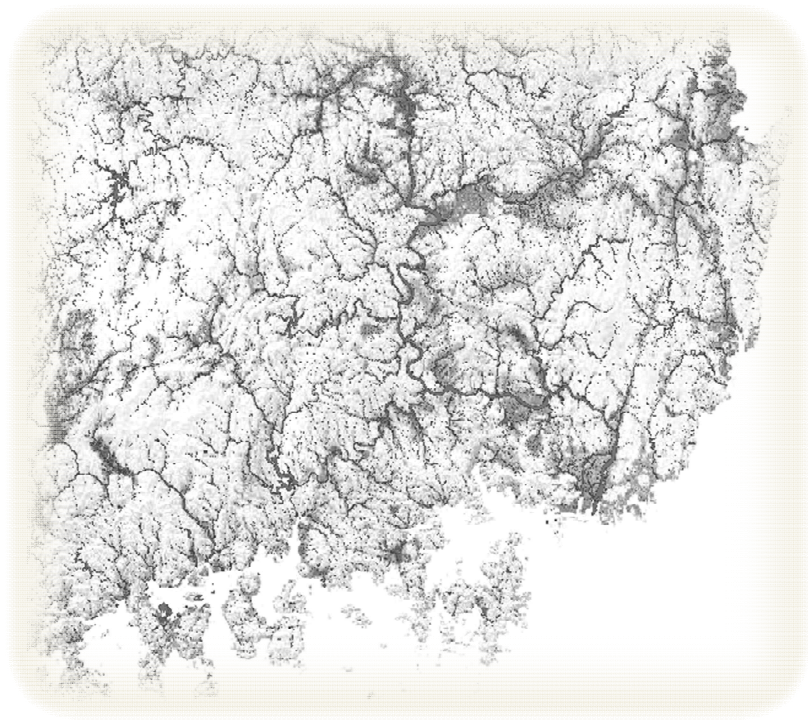


2015년 1학기

가야 유적지 답사

- 함안, 창녕, 고령, 합천 -



2015. 3. 26.~28.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차 례]

1. 가야의 역사와 문화	1
1) 소국의 형성과 ‘전기 가야’	1
2) 후기 가야 연맹과 대가야	2
2. 함안의 유적과 아라가야	4
1) 아라가야 역사 개관	4
2) 함안박물관	5
3) 말산리, 도항리 고분군	7
4) 성산산성, 출토 목간	11
3. 창녕의 유적지와 금석문	13
1) 관룡사와 그 주변	13
2) 창녕 읍내의 금석문	17
3) 창녕의 고분과 석탑	20
4. 고령 대가야의 유적	23
1) 대가야 역사 개관	23
2) 대가야박물관	27
3) 지산동 고분군	29
4) 고대의 순장 풍습	34
5) 그 밖의 유적	36
5. 합천 해인사와 월광사지	38
1) 해인사의 역사	38
2) 팔만대장경	41
3) 월광사지	42
 [참고] 석탑, 불상의 세부 명칭	43

답사일정(예정)

3월 26일(목) : 함안(박물관, 말산리 고분 등), 창녕 관룡사
 3월 27일(금) : 창녕 읍내(순수비, 인양사비, 교동고분, 박물관 등), 고령
 (박물관, 지산동 고분, 장기리암각화 등), 합천 해인사
 3월 28일(토) : 해인사, 월광사지, (상주박물관, 삼년산성)

1. 가야의 역사와 문화

1) 소국의 형성과 '전기 가야'

가야는 낙동강 일대의 비옥한 평야를 토대로 하는 우수한 농업 입지 조건과 함께 풍부한 철 산지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남해안 일대의 김해·부산 등은 수상 교통의 요지를 차지했다. 소백산맥으로 인해 서북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가 어려웠던 탓에 가야는 사회 조직이나 문화의 발전이 늦은 편이었지만, 사회 발전을 위한 내적인 힘을 풍부하게 품고 있었던 것이다.

기원전 1세기경, 위만조선이 멸망하면서 유이민들 중 일부가 낙동강 유역의 일대로 들어왔다. 이들 세력이 보유한 제철 기술 등의 선진 문화는 토착민들의 농경문화와 어우러져 발전하면서 가야 문화의 기반을 형성했다. 기원전 1세기경에 등장하는 목관묘 유적과, 9干的 추대에 의해 이주민 세력으로 보이는 수로왕이 세워졌다는 수로왕 신화는 가야 문화가 이주민 세력과 토착 세력의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했음을 드러낸다.

가야 지역에서 실제로 '가야국'이라고 지칭할 정도의 작은 소국이 등장한 것은 2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위서 동이전에는 변한의 12개 소국이 나온다. 각 소국은 대내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통치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대외적인 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를 들어 낙랑군·대방군과 무역을 하거나 외압이 있을 때, 하나의 큰 통합 체계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변진 12국은 세력이 크고 수상 교통의 요지인 가락국을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체를 이루었다. 특히 김해 구야국은 가야 연맹체의 맹주로서 낙랑군·대방군과 중개 무역을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했고, 또한 중국과 韓 소국들과의 무역을 중개하면서 많은 이익을 차지했다.

해외 무역을 통해 번성하던 전기가야 연맹은 3세기 말부터 난항을 겪었다. 선진문물의 통로였던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병합되었다. 백제와 신라는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 가야를 거치지 않고 중국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 연맹을 주도하던 구야국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3세기 말~4세기 초, 함안의 안라국의 주도 하에 구야국이 해상교역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가야 연맹 내의 세력들이 '포상팔국 전쟁'을 일으켰다.¹⁾ 이로써 가야연맹은 각각 안라국과 구야국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4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팽창으로 인해 가야연맹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창원의 탁순국을 선두로 백제와 가야, 왜를 잇는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 탁순국(창원), 남가라국(김해)을 포함한 7국이 이 새로운 교역 체제에 참여하였으며, 가야연맹은 이들을 중심으로 재결집되었다. 4세기 가야연맹의 명칭은 '임나가라'였는데 이것은 새 교역 체제의 중심이 되는 창원의 미오야마(임나)국과 김해의 가락국을 땀 것이다.²⁾

중국 균현과 韓 소국들의 교역의 중개 역할을 상실하고 철 교역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금

1) 浦上八國은 사천, 마산 등 경남 서쪽의 경남 해안 지대에 분포한 것으로 추정.

2) 任那는 연구자마다 달리 파악하는데, 이는 김태식(2002)의 견해임.

관가야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기 391년 광개토왕은 즉위 직후부터 백제의 영토였던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는 등 백제와 팽팽하게 대결했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399년 백제가 왜와 화통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개토왕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평양성으로 내려갔다. 400년 광개토왕은 5만의 군대를 신라에 보냈고 임나가라의 한 성으로 퇴각하던 가야왜 연합군은 곧 고구려·신라 연합군에 항복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성주의 성산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밀양의 미리미동국, 부산의 독로국 등이 신라로 이탈하였으며,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던 김해 가락국의 주체 세력이 멸망함으로써 전기가야 연맹은 해체되었다.

2) 후기 가야 연맹과 대가야

고구려와 신라 연합국의 임나가라 정벌 이후 전기가야 연맹은 큰 타격을 입고 해체되었으나, 가야 지역 중 내륙 산간지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다. 가야의 이름과 그 문화는 고령 지방에서 다시 부흥하게 되는데 그 둘의 연관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대가야 건국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후기 가야 세력이 시조대부터 금관가야의 수로왕과 형제 관계임을 강조함으로써³⁾ 전기 가야 연맹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인식 아래 가야 지역을 재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야 세력은 서쪽으로 확산되어 함천, 함양 등을 거쳐 지리산 북쪽 산록의 남원까지 미쳤다. 그러나 후기가야 연맹은 무령왕대 백제의 남방 경영정책의 결과로 6세기 초에 전남 동부 여수 일대를, 6세기 후반에는 전북 남원, 장수, 임실 지방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대가야는 경계 지역에 성을 쌓고 왜와의 교역 거점인 대사진(하동)을 지켜내려 했으나, 백제에 왜가 동조함으로써 대외적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 교역망에서 고립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고, 가야국은 그 문제의 책임을 탁순국에 전가함으로써, 신라의 보복으로 탁순국이 멸망했다. 그러자 가야 연맹의 동남부 지역 국가들은 이 사태를 방조한 대가야를 불신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함안의 안라국을 중심으로 자체적 단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안라국은 백제, 신라, 왜 등의 사신을 초청하여 자국이 가야 남부 제국의 새로운 중심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려 하였다.

안라국을 중심으로 한 가야 남부 제국이 친왜적 성향을 보이자 백제는 왜와 독점적으로 교역하던 것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백제는 가야에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많은 서남부 소국들의 주권이 백제로 넘어갔다. 한편 신라 또한 4세기 말 이래 낙동강 하구 지역으로의 진출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가야로 침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신라는 5세기 초 이후 김해 지역의 예안리와 가달 등을 교두보로 확보했는데, 이후 금관가야는 신라의 군사적 침공에 532년에 내항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본래 대가야국은 시조 이진아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모두 열여섯 세대 520년이다. 가야산의 여신인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와 결합하여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란국왕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

백제는 칠월에 구례모라성을 축성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탁순국 주변의 5개 성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정치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워진 것이 임나일본부 즉 安羅倭臣館이나, 사실상 왜국은 그 설립에 거의 무관하였으며 백제의 대왜 무역을 위한 중계소와 비슷한 성격을 띠었다(김태식, 2002). 이처럼 꾸준한 압박을 받고 있던 탁순국은 백제가 국내 문제 때문에 관심이 흐트러져 있을 때 스스로 신라에 편입되었다. 한편 이는 신라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앞서 김해지역을 교두보로 얻은 신라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 끝에 530년을 전후하여 탁순국 뿐만 아니라, 남가라·탁기탄을 병합했다.

탁순국 투항 이후 신라는 더 나아가 구례산성에 주둔해 있던 백제군을 쫓아낸다. 그 틈을 타 안라는 왜신관을 친안라 성격의 왜인 관료들로 재편성함으로써, 신라와 백제의 압력으로부터 가야 연맹을 지켜내려 하였다. 한편 백제는 그런 안라에 대응하여 대가야 중심의 가야 북부 지역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가야 측 소국들도 국제관계에 대응하고자 친백제적인 성향으로 돌아섰다. 이제 가야 연맹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대가야, 안라 이원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원화되어 있던 가야 연맹도 대외적으로는 일원적인 외교를 수행했다. 백제와의 사비회의가 대표적인 것으로, 541년·544년 두 차례의 사비회의에는 가야 7·8개 소국의 대표들과 안라왜신관 관리 등 가야 사신단이 모였다. 하지만 몇 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가야-백제-왜의 이해관계는 서로 합치할 수 없었고 회의는 모두 결렬되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강력한 세력을 뻗치던 고구려로부터 오늘날 한강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신라와 백제는 표면적으로 공조하였다. 그런 가운데 백제는 왜 및 가야에 지속적으로 문물을 공급하고 인원을 파견했다. 왜도 그런 백제에 호의를 드러내며, 병사를 지원해줄 것을 약속한다. 이에 안라국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왜의 지원을 받는 백제는 안라국에 서서히 압력을 가할 것이었고, 곧 안라국이 백제의 속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안라는 고구려에게 백제 정벌을 요청했다.

얼마 후 548년, 고구려는 백제 馬津城(예산군 예산읍)을 공격했지만, 백제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막아냈다. 이때 잡힌 고구려측 포로가 그간 고구려와 안라 사이의 밀통을 폭로했는데, 백제 성왕은 이 점을 이용하여 가야 연맹을 속국처럼 만들었다.(김태식 2002) 이후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내분이 일어난 틈을 타서 함께 북진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553년 7월, 신라가 백제의 한강 하류 유역을 급습하여 차지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백제는 백제-가야-왜 연합군을 조직하여 신라를 공격하는데, 관산성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백제 성왕이 시해됨으로써 백제-가야 연합군의 패배로 종료되었다.

전쟁의 패배로 가야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힘의 균형이 완전히 신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가야 소국들은 신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다. 그 후 신라는 일련의 한강 유역 경영을 대략 마치고 나서, 가야 연맹을 병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560년 무렵 안라국은 신라의 강압과 회유에 별 저항 없이 신라에 병합된 듯 보인다. 한편 대가야는 교역보다는 제철 능력이나, 농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말기에는 백제 측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친백제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하여 보다 독자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신라 화랑 斯多舍이 기병 5,000을 끌고 대가야에 쳐들어왔다. 신라 측 기록에 따르면, 진흥왕이 장군 이사부(異斯夫)에게 가야국을 ‘습격’하게 했으며, 가야 사람들은 “뜻밖

에 신라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므로, 너무 놀라서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즉 대가야는 562년 9월 신라 대군의 기습공격으로 멸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가야 연맹 제국은 대세에 눌려서 거의 일시에 신라에게 항복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가야 연맹의 멸망에 관해 위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논문도 있다. 앞서 본 탁순, 탁기탄 복속 이후 신라의 가야 진출은 느린 속도라도 계속되고 있었으며, 신라의 가야 복속이 6세기 중엽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 1』, 푸른역사

권주현, 2004 『가야인의 삶과 문화』, 해안

이희준, 1999 「신라의 가야 服屬 過程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嶺南考古學』 25

2. 함안의 유적과 아라가야

1) 아라가야 역사 개관

아라가야는 현재의 경상남도 함안지방에 있던 가야의 국명이다. 가야제국 중에 지명 고증이 이루어진 곳은 김해, 함안, 고성, 함천, 고령이다. 그중에서도 함안지방은 아라가야 시기의 유물로 보건대 금관가야, 대가야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했던 때가 있었다. 함안 지역은 남고북저의 분지형 지형으로 북서쪽에는 남강과 낙동강이 흐르고, 남동쪽에는 해발 600m 전후의 높은 산들이 있다. 산간의 골짜기 밑에 발달한 평야에서 식량생산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특히 남해와 인접하여 풍부한 해산자원을 획득하고, 외래의 문화를 쉽게 흡수함과 동시에 대외활동을 할 수 있었다. 즉 다른 가야제국보다 정치적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함안지역의 이 정치체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안야국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변한 소국 중의 하나였던 안야국은 3세기 중·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포상팔국 전쟁에서의 승리와 철기문화수용을 바탕으로 4세기 이후 안라국, 아라가야로서 지역연맹체로 발전하였다. 함안이라는 지역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아라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에서 금관가야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400년(광개토왕 10)에 왜의 침입을 받은 신라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함에 따라 5만의 병사를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했다고 한다. 종래 연구에서 가야는 고구려, 신라와 대적하는 위치로서 고구려의 승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 서기에 5세기 대 이후 아라가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다른 지역과 비교한 내용이 있다. 또한 아라가야가 고구려와 적대관계였다면 5세기대 아라가야의 발전을 보여주는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말이산고분군의 축조 시점이 5세기 초 이후이기 때문이다. 즉 아라가야는 금관가야가 쇠하자 대가야에 속하거나 연합했던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 세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대가야는 530년 금관가야가 멸망한 후 오히려 주변 가야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532년 경에서 54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대가야-안라의 남북이원체제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6세기 이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야후기의 중심국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대가야에 비해 아라가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단 함안분지 일대와 진동만에 해당하는 세력 범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대가야의 토기양식이 금관가야나 소가야의 고총에서 발견되는 반면 아라가야는 독자적인 양식이 다른 가야의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6세기 대 아라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529년에 안라가 주도한 高堂會議은 백제와 신라의 가야지역 진출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의 가야지역 진출 욕구를 막을 수 없었다. 백제가 관산성전투에서 신라에 패하자, 신라가 백제를 배제하고 가야지역에 진출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560년 경 멸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560년, 561년경 신라가 외교적,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표현한 문헌들이 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고고자료에 의할 때 아라가야의 특징적인 토기인 화염형투창고배의 등장과 소멸을 아라가야의 발전 및 쇠퇴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도항리·말산리고분군 이외 함안지역에 있는 고분의 수는 13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아라가야 전성기의 최대 범위는 함안분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외곽 지역인 칠원권, 창원권, 진동권, 군북권, 의령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와 주변제국』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2) 함안박물관

2003년 10월 30일에 개관하여 안라국(아라가야)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말갑옷, 수레바퀴모양토기, 불꽃무늬토기, 무양뚜껑, 미늘쇠 등 가야시기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 함안의 역사연표와 왕궁지 사진패널, 아라가야의 대표 유적인 말이산 고분군 모형, 고분군과 산성이 표시되어 있는 함안의 지형모형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전시장을 통하여 아라가야 형성 이전의 선사시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2전시실 함안지역에서 확인된 각 시기별 무덤형태가 모형제작되어 전시되어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3전시실 삼한, 삼국시대에 함안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한 아라가야사람들의 유물, 유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기유물과 금속유물은 주제별로 전시되어 아라가야의 토기문화와 철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토기가마유적과 마갑총, 대외교류장, 초대형건물지유적장 등을 특별주제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 영상시설 및 홀로그램, 매직비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제4전시실 아라가야 멸망이후의 함안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라가야 멸망 직후 유적으로서 성산산성 출토 유물과 목간이 전시되어 있으며, 고려 조선시대의 불교문화, 도자문화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함안의 인물과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판과 서적을 비롯하여 ‘도천재 단서죽백’과 ‘정충록’ 등의 공신문서, ‘영종대왕국휼복상도’, 통문 등 약 3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제5전시실 함안의 문화재와 민속품, 전설과 세시풍속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와 영상물, 모형, 실물자료 등을 통해 함안의 교육기관과 제방축조과정이나 길쌈 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기획전시실 색다른 주제의 전시를 위한 공간이며 매년 새로운 전시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야외 전시장 군북 동촌리 26호 고인돌과 삼기마을의 선돌, 10배 크기로 조형된 수레바퀴토기 등이 재현되어 있으며, 군민들이 기증한 석제유물과 석탑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덧널무덤과 돌방무덤을 원상으로 복원하여 무덤 속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칠서 대치리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을 이전복원하고, 보존처리를 통해 야외전시를 하고 있다.

주목할 유물

동근고리칼(제1전시실) 도항리 마갑총의 대형 덧널무덤에서 말갑옷과 함께 발견된 칼이며, 동근고리앞면과 칼 등부분에 번개문의 금상감기법(금속의 흠을 파고, 가느다란 금실을 끼워넣는 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수레바퀴모양토기(제3전시실) 가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함안지역에서만 출토된 함안양식토기이다. 수레바퀴모양의 실용적인 용도로서는 술잔으로 보는 설과 향로라 보는 설이 있다. 향로로 보는설은 불교와도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또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담아 저승으로 편히 모시게 하는 도구로 보기도 한다. 야외전시장의 수레바퀴모양 조형물은 함안 도항리 4호분에서 출토된 수레바퀴모양 토기를 10배 크기의 브론즈로 재현한 것이다.

미늘쇠(제3전시실) 주로 지배층의 무덤에서만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지배자의 의례행위에 사용된 함안지역의 대표적인 의기(각종의 의례에 사용되는 도구) 이다. 공부에 나무를 끼우고 신부의 많은 구멍에는 끈이나 가죽을 연결하여 지배자의 의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갑옷(제4전시실) 마갑이 보급된 것은 3국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4~5세기 무렵이다. 말갑옷의 크기는 총길이 2m26cm~2m30cm, 너비 43~48cm이다. 말갑옷은 도항리 마갑총의 대형 덧널무덤(木槨墓)에서 출토되었다. 덧널무덤 중앙에 시신을 안치하고 오른쪽 가슴부위에 길이 83cm의 금판을 장식한 동근고리칼을 놓았다. 그 양 곁으로 마갑을 매납하였다. 그 외에 발치쪽에서는 굽다리접시, 목긴 항아리 등 토기 유물이 매납되어 있다.

3) 말산리, 도항리 고분군

말산리 고분군

함안 末山里古墳群(사적 515호)은 도항리 고분(사적 85호)과 함께 아라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고분 유적이다.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을 합쳐 함안 말이산고분군으로 통칭한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가야 초등학교 일대 구릉부에서 남으로 2.5km으로 해발 30m~65m 범위의 비교적 낮은 고층들이 활처럼 주능선을 따라 이어진다. 1917년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34호분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후 14회에 걸쳐 비록 남아있는 봉토에 대한 측량 조사였지만 1992년에는 직경이 30m이상이고 봉분이 뚜렷한 대형분부터 봉분이 없는 소형분에 이르기까지 110여개 이상의 고분이 발견되었다. 1986년에 창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4-1, 14-2호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고,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의 조사에서 마갑총과 목곽묘를 비롯 암각화고분 등이 발굴되었다. 1997년 경남고고학 연구소 조사에서 목관묘, 목곽묘가 90여기 조사되었다.

함안지역의 고분문화는 축조되는 묘제의 변화에 따라 4기로 나뉜다.

I기 (3세기~4세기) 목곽묘가 주묘제. 대체로 4m 이내의 소형. 1m이내의 얇은 묘곽을 파고 그 안에 목곽 설치. 바닥면에는 별다른 시설 없음. 통형고배, 단경호, 파수부잔 등을 중심으로 출토. 말이산 고분군에는 소수만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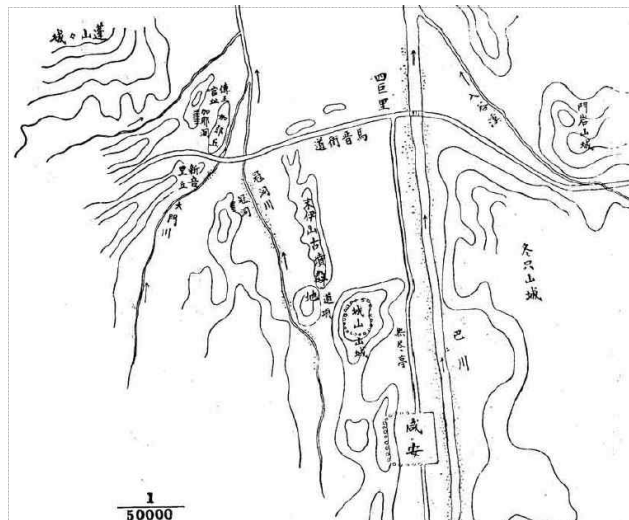
II기 (5세기 전반) 대형목곽묘 출현. 목곽내부 바닥면에는 자갈을 고루 깔아 시상대로 이용하면서

배수의 기능도 겸함. 장각고배의 출현과 말갑총 및 무기 부장. 화염형투창고배의 본격적인 등장과 말갑 등이 출토되면서 이 지역의 수장층의 형성을 엿볼 수 있다.

III기 (5세기후반) 수혈식목곽묘, 석실의 규모 7m 이상이며 직경 20m가 넘는 대형봉분이 말이산고분군 내에 조영되기 시작. 석곽의 내부에는 주피장자와 순장자의 매장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이 시기에 화염형투창고배가 순장자의 매납유물로 전락한다. 말이산 34호분, 13호, 39호분.

IV기 (6세기) 횡혈식석곽 출현. 화염형문투창고배 완전히 퇴화됨. 개배, 파수부일단형투창고배의 유입. 말이산 14-2호, 암각화고분, 4호 등.

함안 34호분은 일제강점기에 유일하게 석곽 내부까지 완전하게 조사된 봉분이다. 아라가야 전성기를 대표하는 봉분의 지름이 39m, 높이 9.6m에 이르는 대형고분으로써 고분의 중앙정상에서 약 7.6m아래에 길이 9.6m, 높이 1.65m, 폭 1.71m의 장방형석곽이 남동으로 길게 만들어져 있었다. 구덩식덧널무덤 혹은 수혈식석곽묘로 일컬어진다. 이 고분에서는 갑옷과 투구로 장



함안의 산성과 고분군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

식된 큰칼과 금동으로 장식된 마구류, 그리고 많은 양의 함안식 토기들이 출토되었으며 5~6 인이 순장되었다.

이러한 말산리 고분군의 대형 수혈식석곽에는 벽감과 같은 시설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고구려와 백제와 어떤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왕묘급 고총들이 같은 소구릉 상에 입지하고 모두 동일한 규모인 점이 주목된다. 이는 왕권이 특정 수장계열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왕묘급 고총인 구34호분, 8호분, 6호분에서는 마주, 행엽 같은 마구를 비롯한 신라산 문물이 부장되어 아라가야가 신라와 마구와 장신구를 도입함으로써 대가야와 뚜렷이 구분되는 세력임을 보여준다.

말산리 도항리 고분군에서는 4세기의 대형 목곽묘가 확인되지 않아 아라가야 세력의 활동을 알 수 없으나 토기 양식의 분포를 통해 그 위상을 살필 수 있다. 아라가야의 토기 양식의 시대별 전개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세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 (3~4세기) 통형고배, 컵형토기, 노형기대, 파수부잔

2단계 (5세기 전반) 함안양식 토기 성립. 화염형 투창고배와 상하일렬투창고배 특징적. 발형기대 출현

3단계 (5세기 후반) 화염형 투창고배, 상하일렬투창고배 사라짐. 삼각형투창고배와 개배류 보편화.

4세기대부터 지역색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해, 부산지역의 토기와 달리 5세기 전까지는 아직 함안 양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견해(조영제)가 있다. 반면, 함안 지역산 토기의 분포권으로 유추해 볼 때, 아라가야가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 전기의 양대세력이었다는 주장도 있다(박천수). 이는 4세기대 아라가야양식의 통형 또는 공자형 고배, 노형기대, 승석문호는 남강수계, 황강수계, 낙동강 상중류역의 교통로를 따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함안양식 토기가 영남전역과 전남 지역의 남해안 일대, 전북 지역의 호남동부 지역 더 나아가 신라의 수장묘에까지 출현한다는 것이 주목된다(박천수).

4세기대 함안 고분양식에서 최고 지배자의 무덤양식인 대형목곽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박천수의 연구에서 4세기대 함안 토기가 매우 넓게 분포했다는 점은 4세기대 아라가야 정치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은 5세기 전반부터 대형수혈식석곽묘가 말산리 고분군 분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순장이 출현했다는 점과 함안 양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토기 양식이 확립되었다는 점은 5세기에 아라가야의 세력이 가야연맹체 내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말산리 고분을 둘러싼 논쟁

함안 말산리 고분의 조영 순서와 순장 시기와 관련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진행 중이다. 말산리 고분 내에서 고분의 축조 위치는 중심 고분을 중심으로 상대 서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구릉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늦은 시기의 유구들이 편재해 있다고 대체적으로 합의된 바와 달리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축조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3번째 지능선 상에 위치한 8호분과 5번째 지능선 상에 위치한 15호분이나 54호분, 6번째 지능선 상에 위치한 22호분 등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순장이 출현한 시기와 관련된 문제 제기로서, 기존의 학설에 의하면 5세기 3/4분기에 고총 고분의 등장과 함께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 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던 대형 목곽묘 43호, 48호, 마갑총도 순장처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석곽묘 내에 3개의 공간 분할이 발견되었는데中间的 주피장자를 중심으로 머리쪽에는 유물, 발치쪽에는 순장자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도항리 고분군

道項里 고분군은 말산리 고분군과 같은 분지 내에 있는 아라가야 최고 지배자층의 공동묘지이다. 도항리 고분군은 대형봉토를 가진 구덩식돌덧널무덤이 대부분이지만 널무덤, 덧널무덤 및 굴식돌방무덤도 일부 섞여 있어 이른 시기부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함안지역의 고분에서 확인된 각종 유물들 중에는 아라가야 지역 외부에서 제작되어 이 지역의 무덤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된다. 크게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의 유물뿐만 아니라 백제나 일본 등으로부터 온 유물들도 있다. 외래 유물 중 많은 양이 발견되는 것은 금관가야 지역의 것들인데, 도항리고분군 <문>3호, <문>36호에서 출토된 발형기대는 금관가야 지역이었던 동래 복천동 31호분, 김해 대성동 1호분 출토 발형기대와 매우 유사하다.

부장유물 중에는 高杯와 토기가 많이 발굴된다. 특히 火焰形透窓高杯는 안라국의 대표 토기로 간주된다. 화염형투창고배는 약 5세기 정도부터 중심으로 발견되고, 삼각형투창고배는 5세기 전반에 유행하였다. 삼각형투창고배는 화염형투창고배와는 달리 함안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가야의 지배층 순장 양상은 순장자의 매장 위치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도항리 고분군은 함안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 지역의 주실순장 형태이다. 주실순장은 주인공이 안치된 주실에만 순장자를 매장하는데, 방의 크기에 따라 순장자의 수가 비례한다. 순장자의 배치는 주인공의 머리맡이나 발치부분이다. 5명 정도가 평균인데, 도항리 고분에는 함안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6명이 순장되었다.

도항리 고분군에는 여러 형식의 고분이 있다

널무덤(목곽묘)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른 시기의 가야 고분군이 기원전 1세기 경부터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도항리 고분군의 널무덤도 이와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널무덤은 이 시기의 보편적인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덧널무덤(목곽묘) 널무덤 후에 보여지는 무덤 양식은 덧널무덤이다. 덧널무덤은 소형묘와 대형묘로 나누어진다. 대형묘는 중심 집단의 권력이 심화되고 세분화되어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말갑옷이 출토되어 유명한 馬甲塚이다.

마갑총은 도항리·말산리 고분군이 있는 주능선의 북쪽 끝에서 발견된 대형덧널무덤이다. 5세기대 함안양식으로 정형화되기 전 단계의 기종구성과 기형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고분의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출토유물도 상태가 매우 양호한 말갑옷 1습과 철모 등의 철제품이 출토되어 상류층의 무덤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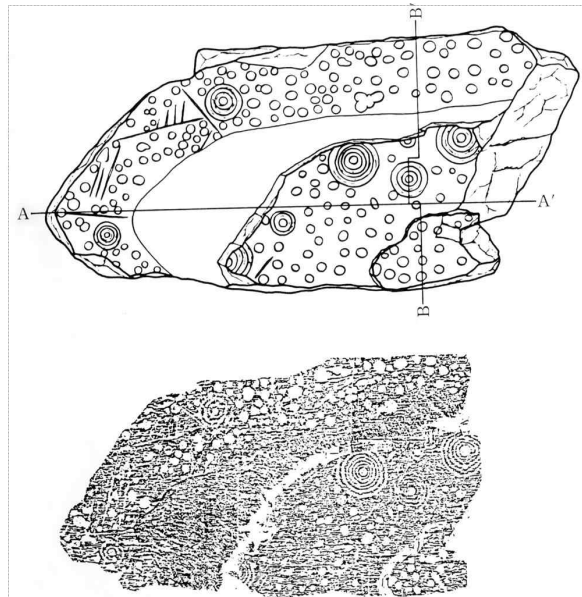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실분) 5세기 정도부터 구덩식돌덧널무덤의 전성기가 찾아오는데, 이 시기부터 대형고총이 만들어진다. 도항리고분군의 대형 구덩식돌덧널무덤에는 벽감(壁龕)과

같은 시설이 있는데, 고구려나 백제지역의 굴계(橫穴系) 매장시설이 어느 정도 유입되었다고 짐작된다. 함안 최대 고분군이며, 가장 많은 순장자를 매장했던 고분이 구덩식돌덧널무덤의 형태로 지어진 함안 4호분이다.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 다른 모든 가야지역에서처럼 일정 시기부터는 함안분지 내에도 굴식돌방무덤으로 형식이 바뀐다. 도항리 고분에서 굴식돌방무덤이 나타나는 시기는 6세기경이라고 추측된다. 굴식돌방무덤은 백제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무덤으로서, 이전 시기의 구덩식돌덧널무덤과는 다르게 사람을 추가로 묻을 수 있는 형태이므로 무덤의 경제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이른바 대가야 계통의 토기양식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이는 등 부장유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암각화고분

도항리 고분군에 있다. 고분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약 해발 60m의 능선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암각화고분은 능선의 남쪽 끝부분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 상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고분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도굴이나, 경작 등의 인간행위에 의한 손상이 매우 심하지만, 다행히도 암각의 남쪽 일부가 원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정확한 연대는 짐작하기 힘들지만, 출토 유물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라가야 말기인 6세기 전반경이라고 생각 된다. 석곽 내부에선 순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석곽의 중앙 부분에 피장자가 묻히고 그의 머리카락이나 발끝에 순장자가 매장되었다. 피장자의 머리카락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 지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는데, 도굴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함안 암각화고분의 암각화

[참고문헌]

- 이주현, 1994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조사와 성과」 『가라문화』 12
- 창원문화재연구소, 1996 『咸安岩刻畫古墳』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2000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2000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 조원영, 2008 『가야, 그 끝나지 않은 신화』, 해안
- 박천수,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학연문화사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와 주변제국』

3) 성산산성, 출토 목간

성산산성

함안산성이라고도 불리는 함안 성산산성의 정확한 위치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와 함안면 괴산리 두 행정구역에 걸쳐진 조남산 정상 일대이다. 산 바로 아래 남동쪽에는 기차가 지나가는 함안역이 있고 남쪽으로 보면 높은 여항산(744m)이 보인다. 북쪽으로는 함안천이 흘러 남강에 합류하여 동쪽으로 낙동강에 합류한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의 주도 하에 1991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2009년까지 14차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발굴조사 보고서도 발간했다. 현재는 16차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성산산성은 1963년에 사적 제67호로 지정이 됐으며 신라의 축성 기술을 파악할 수 있고 고대 금속, 토기, 기와 유물이 다량 발굴되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계에서 제일 주목 받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단연 목간이다. 우리나라에 얼마 없는 목간 유물이 성산산성에서 다량 발견되었고 사료가 빈약한 고대사 연구에 하나의 기록된 자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성산산성에 관해 언급한 고대 자료는 거의 없기에 성산이 축조된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가늠하기 힘들다.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조에 “그래서 신라가 아라·파사 두 산에 성을 쌓아 일본에 대비했다(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는 기록이 있다. 신라가 가야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면서 함안 지역에 성을 쌓은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인데, 이 것이 곧 성산산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성 내부 구조는 우선 자연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해발 고도는 낮아졌다 살짝 올라가는 형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낮아진다. 이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네 방위 중 북쪽을 제외하고 각각 훼손돼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문지가 있다. 동쪽 성벽은 개방된 형태이며 이는 신라의 보은 삼년산성과 문경 고모산성과 유사하다. 성벽은 자연석을 가공하여 쌓았으며 산성의 모습에는 신라의 건축기법인 외벽보강 구조물을 활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성벽을 강력히 지탱하기 위해 구조물을 이용하여 성벽에 밀착시켜 받치는 건축 기법이다. 성산산성은 내외벽을 모두 돌을 이용하여 쌓은 협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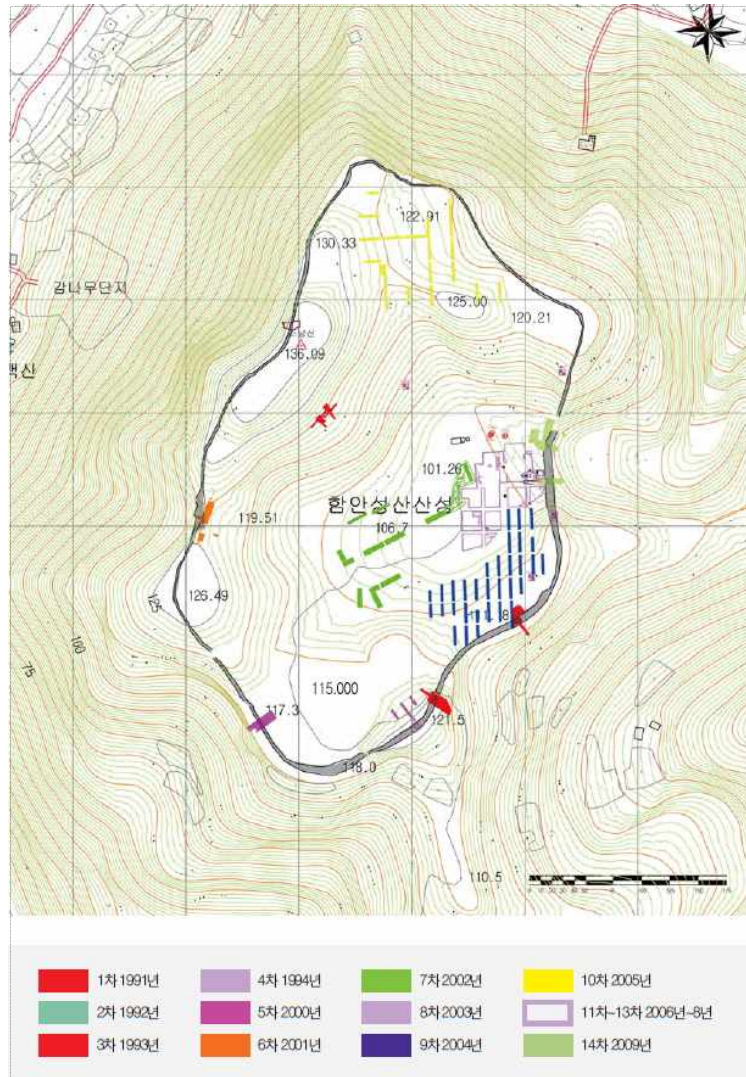
출토된 유물 중 목간이 제일 주목 받고 귀중한 사료로 여겨지고 있지만 금속, 토기, 기와도 다량 발굴됐다. 금속 유물 중에서는 철촉과 같은 무기류가 출토되었음은 산성의 군사적 성격을 보여준다. 사람이 사는 곳인 만큼 철제 농기구를 비롯하여 철술과 항아리 뚜껑과 같은 용기류도 발견되며 용도가 불명한 철제 파편들이 다량 발견되었다. 토기도 다량 발굴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것은 몇 안 되고 파편으로 흩어진 게 다수다. 도상복원을 이용하여 토기 형태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결실 부분이 심한 토기가 많다. 기와 중에서는 얼굴 형태가 비교적 뚜렷이 보이는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고 심지어 조선시대의 기와가 발굴된다. 이는 신라 멸망 이후의 왕조에서도 산성이 계속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군용 식량으로 쓰였을 법한 과일이나 견과류 씨앗과 껍질, 그리고 동물뼈와 어패류 껍데기 등의 유기물 또한 발견된다.

성산산성 출토 목간

학계에서 제일 주목하는 함안 성산산성의 유물은 목간이다. 목간이란 문자의 기록을 위해 중

이처럼 쓰인 나무 조각이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자주 쓰였고 우리나라는 1975년 경주 안압지에서 50여 점이 출토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 목간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다른 왕조에 비교하여 분포가 고루 이루어져 있어 신라 내 지역간 목간의 차이도 연구할 수 있다.

성산산성에서는 주로 성산의 저수지에서 출토되며 이는 습한 지역에서 목재의 부식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출토된 목간은 2/3 가량이 소나무 재질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은 상수리나무와 밤나무, 기타 나무순이다. 목간에 기록된 문자는 육안으로 해석 가능한 것도 있으



성산산성 조사현황(2012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보고서Ⅳ』)

나 그렇지 않은 목간이 많아 자외선 카메라를 통해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목간의 주된 기록 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명과 인명, 그리고 신라의 관등명이 다수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신라 사회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목 받고 있다.

이들 목간은 과연 어디에 쓰였는가? 목간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립된 정설은 없다. 목간의 주 기재 형식을 보면 지명+인명+관등의 기록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성산산성에서 신분증으로 기능하였을 名籍證을 제시하고 있다. 산성이 군사적 요충지임을 감안하면 내 실무자들의 출신지와 이름, 그리고 벼슬을 기록하여 성산 출입 업무 때 필요하였을 것이다. 또 상관의 벼슬과 이름을 알아보는 데에도 유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荷札木簡설을 제기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짐꼬리표로, 물품에 달린 그 물품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기재한 목간이다. 신분증으로 기능하기에 목간의 크기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신분증으로 기능하려면 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면 충분한데 複數의 인명이 적혀 있다는 것이 그 반박 논지이다. 덧붙이자면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목간 중 稗와 麥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貢進

된 물품의 하찰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어 위의 두 기능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학자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합의된 정설은 없다.

하찰목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더 나아가 신라의 수취체계와 지방 행정체계를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간에 적힌 지명과 관등의 기재로 보아 행정촌에 파견된 신라 관료가 촌에서의 공물 납부 사항을 기록하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촌에서의 수송인력을 모직하여 인적사항을 목간에 기록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정복활동이 활발했던 6세기 중후반의 신라는 새로 편입된 지방 행정구역에서 중앙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음을 감안하여 지방 행정구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추측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성산산성의 발굴조사 시작된 지 20년 정도밖에 안된 만큼 목간의 용도와 해석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렇다 할 정설로 인정된 학설은 없다. 또 정설이 확립이 안 된 주된 이유가 목간의 기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적외선 카메라 촬영기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체 혹은 자연 훼손으로 인해 해석 불분명한 글자가 상당히 많고 학자마다 한자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련의 연구 성과가 6세기경 신라의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참고문헌]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咸安 城山山城』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咸安 城山山城 I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출토의 木簡」 『한국고대사연구』 19(李鎔賢 譯)
 李京燮, 2004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박종익,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연구 흐름과 과제」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의의』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이수훈, 2012 「城山山城 木簡의 ‘城下麥’과 輸送體系」 『지역과 역사』 30

3. 항녕의 유적지와 금석문

1) 관룡사와 그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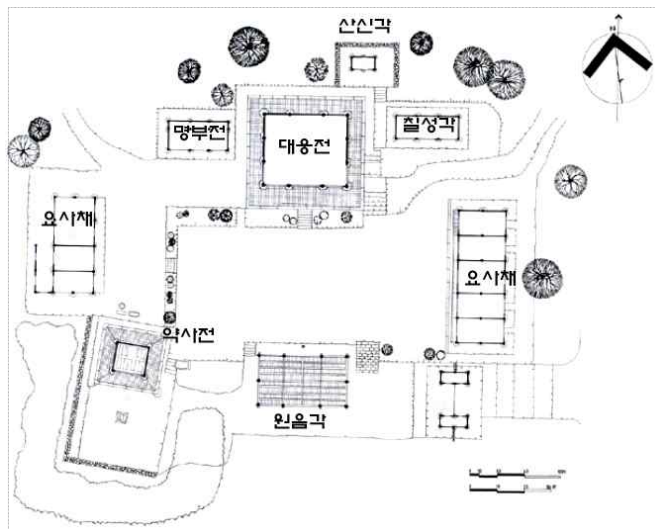
관룡사 돌장승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6호이며, 제작연대는 알 수 없다. 재질은 모두 화강석으로서, 남장승의 크기는 높이 224cm, 너비 64cm이고, 여장승은 높이 235cm, 너비 52cm이다.

왼쪽이 남장승인데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어 상투 같은 둥근 머리와 푹 튀어나온 왕방울눈, 주먹코, 아래로 뚫린 콧구멍과 방방한 턱이 특징이다. 꼭 다문 입술 사이로 송곳니 두개가 양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와 양각되어 있다. 여장승과 달리 관모를 쓴 모습에 콧잔등에 굵은 주름이 두개 새겨져 있으며, 몸통에 명문은 새겨져 있지 않다.

서쪽의 여장승은 사다리꼴 기단석 위에 구멍을 파서 세운 것으로, 몸통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굽어져 안정감을 준다. 장승의 두께는 앞면 너비보다 뒷면 너비가 좁게 되었으며, 두상의 길이가 90cm나 되어서 몸 전체 길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관모는 없으며 맨머리 위에 상투 모양이 조각되었으며, 코는 주먹코인데 콧구멍 두개가 아래를 향해서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꼭 다문 입술 사이로 송곳니 두개가 비스듬히 내려와 양각되어 있다. 역시 몸통에 명문이 없고, 기단 위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다. 이곳 벽수, 즉 장승은 사찰의 경계, 사찰의 논밭, 사찰 경내에서의 사냥이나 어로의 금지, 호법(護法)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웠거나, 또는 풍수 지리학상 허한 곳을 막아주기 위하여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월 10일에 도난당한 적이 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영남지역을 휩쓸었을 때 산사태로 인해 쓰러진 것을 보수공사 때까지 흙으로 덮어놔다가, 관룡사 단층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찾아온 경상남도 문화공보과 직원들에 의해 도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창녕 경찰서에서 찾고 있던 도중 창녕군청 당직실로 ‘석장승이 홍성에 있다’는 제보전화가 걸려왔고, 2월 2일에 이를 회수하였다고 한다. 충남 홍성군 구항면 벽돌 폐공장에서 회수한 석장승 한 쌍은 훼손된 곳이 없었다고 한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따르면 창녕 인근 지역을 탐문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용의자가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석장승은 관룡사의 매미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경찰서에 보관되었으며, 그 후 관룡사 입구에 다시 세워졌다.⁴⁾



[관룡사 전각배치도] 대웅전과 약사전이 동시에 지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관룡사 대웅전

觀龍寺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多包式 팔작지붕건물이며, 보물 제212호이다. 귀기둥 밑에는 거칠게 다듬은 네모난 주춧돌을 깔고, 나머지 기둥은 곱게 다듬은 둥근 주춧돌로 받쳤다. 기둥 위에는 춤이 큰 昌枋과 平枋을 놓고 그 위에 포작을 짜올렸다. 고주 위로 대들보를 걸치고

4) ‘창녕 관룡사 석장승 도난’(『법보신문』, 2004. 3.22.), ‘도난당했던 창녕 관룡사 석장승 찾았다’(『현대불교』, 2004. 2. 3)

대들보와 바깥두리기둥 사이에는 衝樑(한 끝은 기둥에 짜이고 다른 끝은 들보에 걸치게 된 측면의 보) 2개씩을 건너질러 놓았다.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만들되 불단 위쪽은 한 단 높게 하였고, 불단 위에는 寶蓋의 구실을 하는 단집을 가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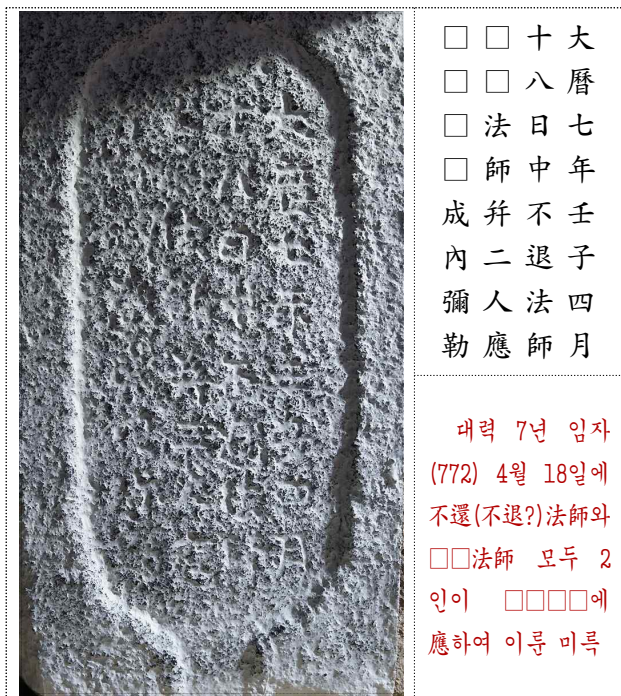
단청은 색상이 명쾌한 錦 단청을 입혔다. 1965년 8월에 해체 보수할 때 가운데 칸 마루도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1401년(태종 1)에 창건하였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7년(광해군 9)과 1618년에 중창하였다. 그 뒤 1749년(영조 25)에 다시 중창하였는데 위 상량문은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상량문 앞부분은 광해군 때의 二重創에 대한 기록을 다시 적은 것인데, 영조 때의 공사를 3중창이라 적었으나, 공사기일이 한달 안팎인 것으로 보아 부분적인 수리에 불과한 듯하다.

안에는 미타, 석가, 약사의 3부처, 3존불(1629, 인조 7, 玄眞·勝一 만듬)이 나란히 있고, 이를 바라보는 왼쪽의 기둥에는 보살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약사전과 불상

관룡사 약사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층 건물로 보물 146호이다. 처음 지어진 시기는 알 수 없지만, 『觀龍寺事蹟記』에 임진왜란 때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유독 약사전만 무사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약사전 앞에는 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3층 석탑이 있다.

약사전 안에는 보물 519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과거에는 용선대 석불좌상을 본떠 고려시대에 만든 불상으로 추정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대좌의 중대석에서 大曆 7년(772)이라는 조성기를 발견하여 신라 통일기에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관룡사 약사전 석불조성기] 탁본과 판독문

대좌의 중대석과 하대석은 전형적인 신라 통일기의 양식인 반면에 상대석의 연꽃문양 양식과 두께가 중·하대석과 어울리지 않는 점을 보아 파손된 상대석만 후대에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등쪽 아래에 광배와 연결되는 철심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광배를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상대석 윗면에서 광배와 연결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상대석이 원래 광배를 지니고 있었던 불상과 함께 조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불상과 상대석, 중·하대석 3부분의 연대가 각기 다른지, 아니면 상대석만이 연대를 달리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불상의 형식으로

보아 아마도 772년에 처음 만들어진 불상은 어떤 이유로든 파괴되고, 그 자리에 용선대 불상형식을 따른 불상을 조성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참고문헌]

柳麻理, 1991 「관룡사석조여래좌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河日植, 1997 「昌寧 觀龍寺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事蹟記》」 『韓國古代史研究』 12

최성은, 2009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河日植, 2013 「昌寧 觀龍寺 藥師殿 佛象造成記」 『韓國金石文集成(13)-新羅9, 碑文9』,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용선대 석불좌상

보물 제295호로 불상 높이 1.81m, 대좌 높이 1.17m이다. 관룡사 뒤편으로 480m 가량 올라간 곳의 용선대라는 거대한 자연 암반 위에 있다. 석불좌상은 通肩 형식의 法衣를 입고 가부좌하고 있다.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 한 채 무릎 위에 올려 놓았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오른쪽 발바닥 위에 놓여 있다. 이로 보아 手印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유행한 降魔觸地印을 모델로 하였으나, 그 모양새가 조금 다르다.

대좌는 上臺와 中臺, 下臺를 갖춘 팔각연화대좌이다.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유행했던 향마촉지인 불좌상을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으나, 불상의 양식이나 수인, 중대가 길어진 대좌 형식 등을 통하여 볼 때, 통일신라시대 9세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해왔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석불좌상 대좌 중대석에서 開元 연호를 새긴 명문을 발견하여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명문은 중대석 북쪽 안상에 새겨져 있는데 마멸이 심하여 온전히 판독하기 어렵다. 전체 3~4행에 각 행 6~7자 정도로 추정된다.

開元十□□… [開元(713~741)은 唐 玄宗의 연호]

月廿□□…

成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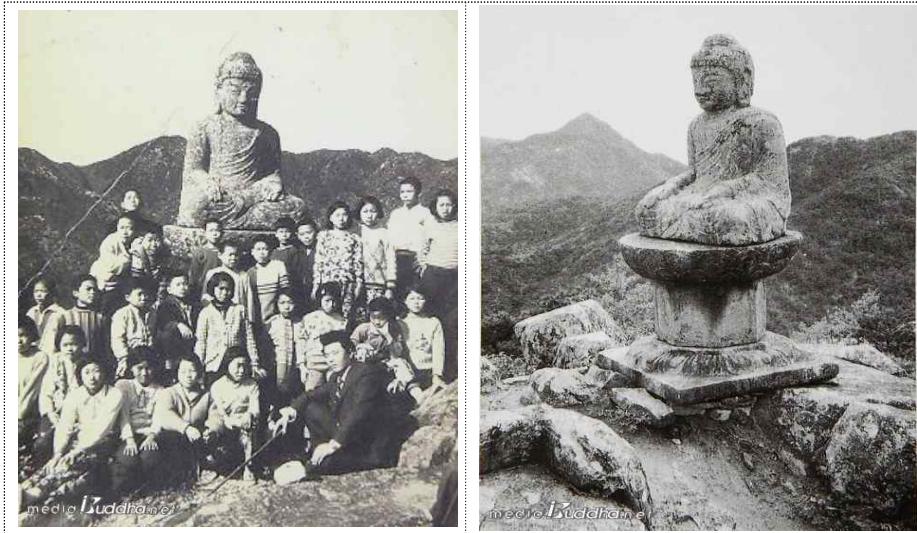
명문을 분석한 최성은은, 명문의 구성은 중대 신라의 전형적인 이두문 형식으로 남아 있는 글자만으로 본다면 “개원 십□년 □월 2□일에 이루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줄에 ‘十’자 다음에 다른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각하면, 이 불상의 조성시기는 개원 10년인 성덕왕 21년(722)에서 개원 19년인 성덕왕 30년(731)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불상이 여러 면에서 삼국통일기 7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의 석불·마애불의 형식을 잇고 있으며 8세기 이후 양식의 연결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강순형 가야문화재연구소장은 먼저 용선대 불상이 앉은 현재의 자리가 본래의 자리가 아니었음을 1970년 초의 사진자료를 통해 밝혔다.⁵⁾

그에 따르면, 1973년 11월에 용선대 석불상은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으며, 뒤쪽의 이전 자리에는 1966년에 또 다른 곳에서 용선대로 석불상이 옮겨져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자리는 보래부터 용선대 불상용으로 조성되어 봉안된 본자리가 아니며, 용선대 석불

5) ‘강순형, 용선대 석불은 다른 데서 온 것’(『미디어붓다』, 2009. 8. 25.)

상이 아예 다른 곳에서 옮겨온 불상이라며, 그동안 9세기로 보아온 佛身과 이번에 발견된 722년의 명문이 새겨진 연화대좌의 온전한 조합 여부와, 연대 추정에 재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의 용선대 석불상은 불신과 대좌의 석질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앞쪽에 놓인 석등하대와 그 연화문의 연대비교 고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북다에 실린 1970년대 초의 용선대 석불 모습

[참고문헌]

이종철, 1985 『벽수신앙현지연구』, 국립광주박물관

河日植, 1997 「昌寧 觀龍寺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事蹟記』」 『韓國古代史研究』 12

최성은, 2009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玉泉寺趾

옥천마을에서 관룡사로 오르는 길 옆의 대지에 있으며, 당시의 축석이 높은 곳은 약 4m 가량 남아 있으며 보조 축대도 축석 하부에 일부 남아 있다. 약 800평에 달하는 사지에는 석재를 비롯하여 연화대석, 석탑재 등 기타 석물 등이 지금도 남아 있어 큰 사찰이 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옥천사의 창건 연대는 미상이나, 고려말 辛旼의 어머니가 이 절의 여종이었다고 한다. 신돈이 죽자 이 절은 폐쇄되었으며, 뒤에 다시 고쳐 지으려다가 완성하기도 전에 다시 신돈의 일로 반대가 생겼기 때문에 헐어버렸다. 그 뒤 李侯基가 창녕을 다스린 지 1년 만에 관리들과 백성들이 옥천사가 철거된 것을 애석히 여기므로 새 당우를 객사의 동쪽에 건립하였다 하나, 현재 그 유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2) 창녕 읍내의 금석문

진흥왕 순수비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이하 창녕비)’는 국보 제33호로 561년(진흥왕 22)에 건립되었다. 巡

狩의 목적은 왕의 민심의 수습과 영토의 확인을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에 건립 될 북한산비, 마운령비, 그리고 황초령비는 각각 영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비석이다. 그러나 창녕비는 군사를 위로하고, 수취제도를 정비하며, 충성을 바치는 자에게 포상하고, 중앙과 지방관이 함께 모여 다짐을 행하는 내용 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비의 내용을 會盟碑로 파악하거나, 全軍 지휘관회의 때 건립된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亲巳年二月一日立 寡人幼年承基政委輔弼 佗 智 行 悉
 事末□□立 □ 赦 □ □□□□四方□改囚□後地土□陝也
 古□□□不□□□□□□□□□□ □ □□人普山 □ 心 □
 除林 □□□□□□□□□□ □□□□此□ 州 □□
 而已土地疆 時 山林□□□□□□□□□也大等与軍主 幢主 道
 使与外村主審 故□□□□□□□ □□海州白田畚□□与
 山 河川 □ 教以□□□□□□□□□□□□□□□□ □ 人
 之雖不□□□□□□□□□□心□□河□□□□□ 于之
 其餘少小事知古□ 彳 □□□□□者□□ 以 上大等与古奈末典
 法 □人 与上□□□□□□□□□□□ □ 此以□□看其身受
 討 于時 日…大 □□□□□□智葛文王□ □ □□者漢 只 □□
 屈珣智 大一伐干□喙□□智 一伐干□□折夫智 一尺干 □□
 □智 一尺干喙□□夫智 迺干沙喙另力智 迺干喙小里夫智 □□
 干沙喙都設智 沙尺干沙喙伐夫智 一吉干沙喙忽利智一□□□
 珣 彳 次公 沙尺干喙尔 亡 智 沙尺喙耶述智 沙尺干喙□□□□
 沙尺干喙比叶□□智 沙尺本汲末□智 及尺干喙□□智□□□
 沙喙刀下智 及尺干沙喙□□智 及尺干喙鳳安智□□□□ □
 等喙居七夫智 一尺干 □ 一 夫智 一尺干沙喙 甘 力智 □□干□
 大等喙末得智 □尺干沙喙七聰智 及尺干四方軍主 比子伐
 軍主沙喙登□□智 沙尺干 漢城軍主喙竹夫智 沙尺干 碑利
 城軍主喙福登智 沙尺干 甘文軍主沙喙心夫智 及尺干
 上州 行使大等沙喙宿欣智 及尺干喙次叱智 奈末 下州 行
 使大等沙喙春夫智 大奈末喙就舜智 大舍 于抽 悉 土 可
 西阿郡 使大等喙北尸智 大奈末沙喙須竹夫智 奈 □ 百
 爲人喙德文 奈末 比子伐停 助人喙覓薩智 大
 奈末書人沙喙導智 大舍 村主 奚 聰智 述干 麻叱
 智 述干

창녕비 판독문(『역주 한국고대금석문Ⅱ』)

현재 창녕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 내용을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판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후반부의 내용은 판독이 가능한 상태이다. 비에는 진흥왕 즉위의 내용과 葛文王·上大等·大等 등의 중앙관직, 喙部 등의 6부 명칭이 보이며, 軍主·幢主·道使 등 지방관이 나온다. 또한 四方軍主와 助人, 村主 등의 지방 유력자의 직명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대 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제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인양사비

창녕읍 교동 294번지의 밭 가운데에 단청을 한 보호각 속에 있는 비상의 문화재 지정명칭은 「창녕인양사조성비」이다. 810년(헌덕왕 2, 元和 5)에 세워졌으며, 정면과 좌우 측면에 문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架裝을 입고 단정하게 서 있는 僧像이 실물에 가까운 크기로 조각되어 있다.

비석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오랜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석영석 알맹이가 떨어져 나가서 표면이 매우 거칠어져 있다. 정면과 좌측면은 마멸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자를 판독해낼 수 있을 만큼 양호한 상태지만 우측면은 상단부에서 1/3 이하 부분을 판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마멸이 심하다.

일제강점기에 碑像을 조사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1917년 가을 무렵에 퇴락한 조그만 보호각 속에 약간 기운 채 서 있다고 언급했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걸쳐 창녕군과 인근 지역의 사원에서 이루어진 불사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비문에 기재된 여러 가지 불사가 뒷면에 조각된 한 개인의 활동과 구체적인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면은 인양사의 탑과 금당이 조성된 일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여러 사찰 불사, 2개의 驛 및 왕경의 사찰들에 곡식을 시납한 액수를 적었다. 그래서 비용을 낸 사람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우고 생전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 비상이 있는 자리였던 인양사에 소속된 부유한 승려가 개인 재산을 들여 인양사를 비롯한 주변 사찰의 불사를 주도하고, 왕경에 있는 사찰은 물론 2군데의 역에까지 곡식을 지원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창녕 인양사 조성비」라는 문화재 지정명칭도 비문의 내용을 온전히 표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우측면은 마멸이 심하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지만 나무 껍질을 먹고(木食) 바위틈에 거처하며(巖居) 풀옷을 입는다는(草衣) 문장을 보아서 승려의 수행 생활을 묘사한 문장으로 추정된다. 좌측

[정면]

元和五年庚寅六月三日順表□塔金堂治成文記之辛亥年仁陽寺
鍾成辛酉年六寺安居食六百六〇壬戌年仁陽寺取妙戶頂礼石成
同寺金堂治同年辛熱榆川二駟施食百二〇乙丑年仁陽无上舍成
壬午年京奉德寺永興寺天嚴寺寶藏寺施食二千七百十三〇壬午
年仁陽寺三寶中入食九百五十四〇同年塔盧半治癸未年仁陽寺金
堂內像成同年苑池寺金堂內像成癸未年仁陽寺塔第四層治同年
仁陽寺佛門四角鐸成乙酉年仁陽寺金堂仏門居堂蓋丁亥年須弥
成己丑年常樂寺无庚會成庚寅年同寺无報會成同年大谷寺石塔
成己丑年仁陽寺赤戶階成寺戶石梯頂礼二石成□鶴足石成庚寅
年龍頭成辛亥年初庚寅年至間□合用食一万五千五百五十五〇

[우측면]

夫大要多語求之塔等□□□門入萬法藏從何□□□力□之□
有木食巖居草衣石□□□□□□□□□□□□利□□□

[좌측면]

依三寶奉報四恩復有傭身獻佛役力供僧栖遲廻谷宴默深山
雪中截臂確下通心怜□□鳩割股念虎投身如此等類皆是菩提

인양사비 판독문

면에서는 중국 선종의 초기 승려들과 관련된 이야기 및 승려의 수행 생활과 관련된 표현들이 보인다. 비가 세워진 연도가 810년임을 감안하면, 중국 선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해하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신라 지방사회에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인양사비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걸쳐 신라 지방사회의 동향과 분위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신라 불교의 수행관과 신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崔鉛植, 1992 「仁陽寺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文明大, 1970 「仁陽寺金堂治成碑像考」 『考古美術』 108

文明大, 1980 「仁陽寺金堂治成碑文의 한 考察-佛教 造形活動의 經濟的 側面을 中心으로-」 『新羅伽倻文化』 11

南豐鉉, 1983 「昌寧 仁陽寺碑의 史讀文 考察」 『國文學論集』 11, 단국대 국문학과

하일식, 1996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韓國史研究』 95

河日植, 2013 「昌寧 仁陽寺碑」 『韓國金石文集成(13)-新羅9, 碑文9』,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

3) 창녕의 고분과 석탑

창녕박물관

총 6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창녕의 고분군’, ‘원삼국 시대’ 등 2개 전시실과 야외 전시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크게 2가지 종류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하나는 교동·송현동 고분군 유물고, 다른 하나는 계성고분군 유물들이다. 주목되는 것은 송현동 6·7호분에서 출토된 금귀걸이인데, 경주의 보문리부부총 출토품과 중간식 및 연결금구의 형태가 유사하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자체 생산되었다기보다, 서라벌의 지배계층으로부터 賜與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삼국 시대 전시실은 창녕 지역에서 발굴된 원삼국시대 토기들을 주로 전시해두었다. 원삼국 시대란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초기 철기시대를 가리킨다. 이 전시실에서는 頭形土器와 爐形土器가 대표적인데, 특히 두형토기는 ‘창녕양식’이라 부를 정도로 독자적인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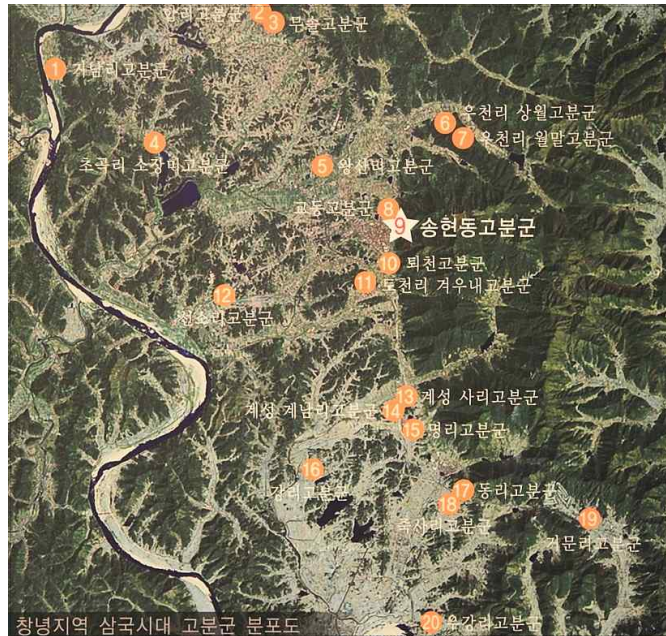
야외전시실에는 계성 고분 이전복원관이 있다. 출토 유물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계성 고분 2지구 1호분을 그대로 옮겨, 봉분과 봉분 아래의 석실까지 가야 고분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교동 고분군

창녕은 『三國志』 東夷傳에 보이는 진한의 不斯國으로서 比自火·比斯伐이라고도 불렸으며,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교동 고분군은 인접한 송현동 고분군과 더불어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동 고분군은 대형분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중소형 무덤이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이를 창녕지역 유력 집단 수장급과 그들의 가족 및 친연관계를 가진 자들의 무덤으로 본다.

교동 고분군은 1911년 일본인 세키노(關野貞)의 소개를 시작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1918년에 조사된 교동 제5~12호분, 제21·31호분과 송현동 제89·9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이 마차 20대, 화차 2량분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金銅冠, 金·銀製垂飾, 銀製冠飾, 金銅冠帽, 金製耳飾 등의 장신구와 각종 마구류, 장식무기류, 비늘갑옷(札甲)을 비롯한 각종 철제무기류, U자형삽날을 비롯한 각종 농공구류와 금속용기류, 각종 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일부 토기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물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그 양상과 형태가 거의 흡사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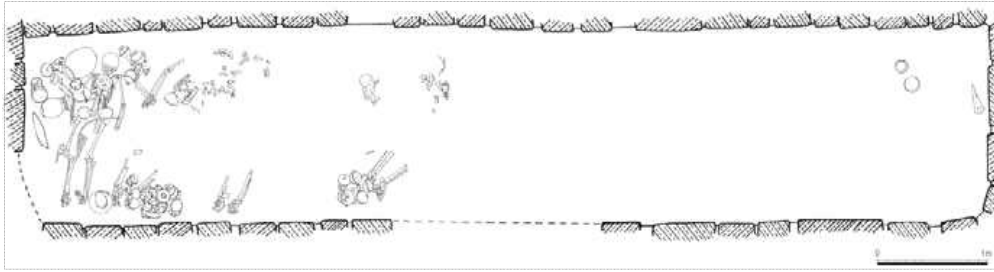
[창녕지역 삼국시대 고분군 분포]

점에서 당시 창녕 지역과 신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은제과관의 경우 방형의 과관에 心葉形垂飾이 연결된 것으로 일부 고정되는 못의 수량이나 재질의 차이가 있을 뿐 교동 12호, 교동 3호, 송현동 6호분과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며, 경주의 황남대총이나 금관총 등의 중심지와 대구, 의성, 양산 등의 신라권역 내에서 확인되는 은제과관과도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동경박물관의 오쿠라 컬렉션으로 소장되어 있는 일부 유물을 제외하고는 그 소장처를 알 수 없으며 대부분의 복원 정비가 완료된 현재와 달리 1930년대에는 대규모 도굴로 인해 고분군 전체가 황폐화될 정도로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경작지 개간으로 원상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형이 있었다.

송현동 고분군

송현동 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마산(해발 470m) 남서쪽 구릉 하단부와 계곡부인 현재의 화왕산(해발 756m) 입구 및 진입로에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17년 이마니시류에 의해 교동 고분군과 함께 처음으로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고분군 내에는 봉분 지름 20m 이상의 대형고분을 비롯하여 중소형 고분이 50여기 이상 분포하고 있다. 6·7호분의 발굴조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배모양의 녹나무관과 함께 280여점의 토기를 비롯한 장신구·마구·무기·농공구 등 90여 점 이상의 철기와 100여 점이 넘는 목기가 출토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 7호분의 목관 주변 석곽 바닥에서 인골편이 수습되어 30대와 40대 성인 남성 2명과 20대 후반 여성 1명으로 판명된 바 있다.



창녕 송현동 15호분(석곽)

송현동 15호분에서는 4구의 순장인골이 발굴 되었는데, 3구는 심하게 교란되어 있었으나, 이 중 횡구부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인골 1구는 전신이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 1구의 인골을 통해 16살인 한 여성 아이를 복원하는데 성공하였고 지역명을 따라 ‘송현’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복원과정이 특별한 이유는 복원연구에서 물리학·유전학·생화학·법의학·해부학·조형학 등 인간의 신체적·생물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분야와 장제(葬制)로서 순장의 의미 등 문화적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고고학 분야의 학제간 융합연구 사례이다.

계성동 고분군

계성면 일대에 있는 계성 고분군은 5세기 초반에서 7세기 정도까지, 가야시대부터 통일신라기까지 축조되었던 대형 고분군이다. 170여 기 이상의 고분이 분포하는데 그 수가 많은 만큼 굉장히 다양한 무덤 구조들을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 횡구식석실묘, 구덩식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 여러덧널무덤(多槨墓), 독무덤(甕棺墓), 등이 있다.

토기, 장신구류, 마구류, 무기류 등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신라후기양식이다. 특히 ‘大千’이라는 명문이 쓰여 있는 단지와 뚜껑 등 명문토기가 주목되는 유물이다. 출토된 유물들은 주로 제작 시기가 6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묘제는 가야시대와 비슷하지만 유물들이 창녕계의 재지적인 특징보다 신라적인 특징을 더 많이 띠는 점에서 독특하다.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가야무덤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1500해 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0 『비사벌(특별전도록)』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창녕교동고분군』

정인태, 2011 「가야지역 고분과 고대 산성의 관계 검토: 경남·고령지대 대형 봉토분과 석축산성을 중심으로」 『古文化』 7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정인태, 2012 「창녕지역 고분 조사현황 및 성과」 『百濟學報』 7

술정리 동탑과 서탑

창녕지역에는 8세기에 이르러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는데, 술정리 동 삼층석탑이 위치한 사찰 역시 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 석탑은 결구 수법과 각 부분의 조각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적당한 비율로 8세기 전성기 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신라 석탑의 발전기 중 완성 단계의 특징으로 보이는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을 지닌 이 탑은 불

국사 삼층 석탑과 비교될 정도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석탑이 위치한 사찰에 대하여 확실한 문헌기록은 없다.

이 절터는 2004년 탑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08년 조사에서 '松林寺'명 기와가 출토되어 해당 사찰의 원래 이름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람배치에 있어서 탑과 금당의 배치가 남북 축선보다는 동서 축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석탑은 1965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전면 해체수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3층 탑신석 윗면 방형사리공에서 동제잔형사리기와 황색유리사리병, 향편 및 소형 구슬 등이 발견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술정리 서 삼층석탑은 동탑과 별개의 탑이다. 그저 근처에 있는 삼층석탑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름 붙여진 것이다. 절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석탑에서 남쪽으로 200m쯤 떨어진 곳에 影池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 절터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동탑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중기단 위에 삼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모습을 지닌다. 상층 기단부 남쪽 면의 길고 네모난 중간면석에 門扉를 거칠게 오목 새긴 것과 동, 북쪽의 중간면석이 2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은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의 결구방법과 조각방식이 특이하지만 가지런한 느낌을 잃지 않았으며 탑신부가 다소 중후하게 보여도 전체적으로 탑이 균형 잡혀 있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탑의 조성시기가 동탑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4. 고령 대가야의 유적

1) 대가야 역사 개관

대가야의 역사

고령 지방은 약 12만년~3만년 전인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 지방의 동쪽에는 낙동강 연안에 형성된 침식 구릉지대에서 많은 중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찌개와 여러면석기가 발굴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령 지방은 산과 구릉지, 들로 고립되어 있는 분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고개와 하천을 통해 다른 분지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비교적 쉽게 막을 수 있는 이점들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갖춘 고령지방에서 한 때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라국을 알아보자.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는 건국신화가 존재한다. 대가야의 건국신화는 『신증동국여

지승람』 제29권 경상도 고령현조에 나와 있다.

시조 伊珍阿鼓王[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道設智王까지 대략 16대 5백 20년이다. 崔致遠의 釋 利貞傳을 보면,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天神 夷毗訶에 감응한 바 되어, 대가야의 왕 惱室朱日과 金官國의 왕 惱室靑喬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 하였다. 그러나 駕洛國 옛 기록의 ‘여섯 알[六卵]의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釋 順應傳에는 대가야국 月光太子는 正見의 10대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異腦王이며, 신라의 夷烝 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으니, 이뇌왕은 뇌질주일의 8대손이라 하였다.

이 대가야의 건국 신화를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두 자식을 낳았다고 했다. 그 아들 중에 한명은 대가야의 왕인 뇌질주일이고 다른 한명은 금관가야의 왕인 惱室靑喬이다. 여기서 惱室靑喬는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다. 금관가야의 건국 신화를 허황된 것이라며 부정하는 모습이 이 신화에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을 부정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대가야의 왕, 금관가야의 왕이 정견모주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보아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가야가 금관가야 중심의 가야연맹 체제에서 대가야 중심의 가야연맹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령지역이다. 『택리지』에 고령지방에 대한 언급이 있다. 고령지역의 논은 비옥하며 가뭄을 모르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물들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고령군에는 많은 철기 농기구들이 발굴 되었다. 고령 반운리 유적에서 발견된 철제농기구를 보아 철제농기구로 농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지방의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이 증진되어 대가야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다른 이유로는 대가야는 친백제 정책을 펴면서 백제로부터 도입한 선진문물 때문이다. 대가야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를 보면 백제의 칠지도에 있는 상감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당시의 문화 선진국이었던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 대가야는 그들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성장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가야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던 중국과 외교를 하였다. 중국과의 교류는 『南齊書』에 나타난다. 가라국왕 하지가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고 그래서 남조는 가라국왕 하지에게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료로 볼 때 대가야는 남제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 중국 대륙과의 대외 교류도 활발히 하여 외교를 한반도 세력 유지에도 힘썼다.

마지막으로 대가야가 전기 가야연맹의 장인 금관가야를 제치고 후기 가야연맹의 장으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남정이다. 391년에 즉위한 광개토대왕은 한강 이남의 충주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다.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에 있던 신라의 요청에 의하여 5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금관가야를 정벌하게 된다. 이로써 금관가야는 회기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전기 가야연맹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대가야는 광개토대왕의 남정에 영향에 거의 받지 않았다. 금관가야의 몰락으로 금관가야에 있던 철기 기술자들은 대부분 대가야로 유입되었다. 금관가야의 몰락과 금관가야의 기술자와 지식인들의 유

입으로 한층 더 성장한 대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의 장으로 역사 속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대가야는 친백제, 친신라 정책을 동시에 펴면서 백제와 신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백제, 신라와 붙어있던 대가야는 가야가 살기 위해서는 백제와 신라와 교류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나라를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계기로 나온 친백제 정책은 6세기 초 백제와 섬진강유역의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게 됨으로써 약해지고 만다.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남해로 나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대가야에게 중국의 남조와 왜와의 교류를 위해 섬진강은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백제와의 국경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대가야의 異腦王과 신라의 이찬 比助夫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월광태자를 낳게 된다. 이러한 결혼동맹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대가야는 백제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지만, 신라는 낙동강 유역으로 영향력을 행세하기 위해 결혼동맹을 맺은 것이었다. 서로 각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투영된 동맹이었다. 신라는 이 결혼동맹을 대가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훗날 대가야를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결국 신라는 529년 왕녀의 시녀를 복식문제로 쫓아 낸 일을 빌미로 삼아 결혼동맹을 파기하고 만다.

이렇게 신라는 결혼동맹을 파괴하자마자 금관가야를 멸망시켰다.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었던 가야는 신라에게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것을 본 후 다시 한 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신라와 맞서기 위해 가야는 다시 백제와의 친선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학자들은 대가야의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을 ‘관산성 전투’로 보고 있다. 551년 고구려 영토였던 한강 유역을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 고구려로부터 다시 빼앗아 온다. 이의 결과로 백제는 한강하류의 6군을 회복하고 신라는 한강상류의 10군을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553년 신라는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을 강제 점령한다. 이 때 백제의 성왕은 대가야로부터 원군을 요청하게 된다. 성왕의 요청에 부응하여 대가야는 군대를 백제와 신라의 전쟁에 보내게 된다. 이 전쟁을 ‘관산성 전투’라고 한다. 554년 관산성 전투는 결국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백제의 왕 성왕, 좌평 4인과 병사 29000여명이 전사하고 만다. 관산성 전투는 옥천지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백제와 신라의 한강 유역과 가야지방에 대한 이권다툼이었다.

가야가 관산성 전투에 백제 편으로 군사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신라의 결혼동맹 파기에 대한 보복과 친백제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신라에게 크게 패한 후 백제의 힘은 매우 약화되게 된다. 친백제 정책을 폈던 대가야도 백제의 국운이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신라는 대가야를 침입할 명분이 생기게 되었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편에 있었던 대가야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보였다. 결국 56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는 대가야를 멸망시킨다. 신라와 백제와 어깨를 겨루며 광대한 고령지방을 호령했던 대가야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대가야의 문화

가야연맹의 국가들은 경남 해안과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발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가야인의 삶과 어로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전기 가야 연맹의 유적지에서 패총(조개 무지)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음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인의 삶에서도 빠지지 않고 드러나는데, 내륙 지방에 위치한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의 유적지에서 어류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후기 대가야인의 삶에서 어로 생활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 특성으로 어로생활이 대가야인의 삶에 중요한 위치였던 것은 틀림없지만 고대인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론 농업이었다. 낙동강 서안의 비옥한 토지 중에서도 가야 천 유역의 고령, 합천 등은 한반도 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최상의 농업 조건과 철제 농기구를 기반으로 대가야는 농업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고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될 수 있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영토 정벌로 인해 전기 가야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가야연맹은 침체기를 걸었다. 하지만 5세기 중엽 경상남도 해안 일대로부터 고령, 합천 일대인 내륙 지방으로 철기 및 토기 제작 기술이 전파되었고 그중에서도 고령의 반파국이 다른 지역의 국가들보다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반파국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철 생산이 풍부한 합천 가야산의 야로 철광을 소유했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영토 확장에 성공하여 국명을 대가야로 바꾸고 후기 가야 연맹체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가야의 철기 제작의 우월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왜국에 대해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며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대가야의 고분에서는 고리칼, 쇠창, 쇠도끼 등의 많은 무기들과 갑옷과 투구가 발견되었는데, 환두대도라 불리는 고리칼의 손잡이에 금이나 은으로 용이나 봉황과 같은 화려한 무늬가 생겨져 있기도 하다. 이는 대가야가 제철 분야뿐만 아니라 세공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가야의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중의 하나로서 지산동 고분군 32호 분 석실에서 발견된 투구와 갑옷은 철판을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든 쇠 갑옷으로 대가야의 철기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태양이나 소의 형상으로 보이는 자연물을 숭상하는 원시 종교 형태를 가졌던 대가야의 종교 생활은 6세기 무렵 불교의 수용을 통해 큰 변화를 맞았다. 이념적으로나 종교적 체제로서나 불교는 부족 형태의 정치, 경제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고 도시화와 중앙 집권 체제와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야의 불교 수용이라는 사실은 대가야의 정치, 사회 체제가 최소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가야가 불교를 수용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가야 왕계에 나타난 불교적 인명들인데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의 어머니인 정견모주와 6세기 대가야의 이녀왕의 아들인 월광태자는 모두 불교식 이름이다. 이는 월광태자의 아버지인 이녀왕이 신라의 법흥왕과의 결혼 동맹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사실은, 당시 불교를 공인하고 활발하게 불교와 관련된 인명을 사용하던 신라를 통해 대가야에 불교가 유입되어 대가야의 왕계를 불교적 인명으로 바꾸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대가야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가야의 궁정 악사인 우륵이 사원의 장례나 법회에서 쓰이던 춤에 대한 주제로 가야금 곡을 연주했다는 점, 『삼국사기』 신라 기에 언급된 대가야의 성문의 명칭이 불교 용어였다는 점, 경북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의 천장에 연꽃무늬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 가야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야금의 기원을 보면 『삼국사기』는 “가야국의 가실왕이 6세기에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 들었으며, 于勒에게 명하여 12곡을 지었는데, 그 뒤 가야국이 어지러워지자 우륵은 가야금을 가 지고 신라 진흥왕에게로 투항하였다고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4세 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토우에서 가야금이 발견되면서, 민족 고유의 현악기가 6세기 초 대가야의 왕 가실왕의 명령에 따라 우륵이 당나라의 쟁을 모방 발전시켜 완성했다는 주장이 국악학계의 통설이다. 대가야의 가실왕이 우륵에게 만들라고 명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당시 국력이 약해지고 가야소국들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당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의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추정된다. 가야금의 12개의 현은 1년 12달 사계절 상징하고, 현을 바치는 기둥이 3촌인 것은 천, 지, 인 즉 3재를 상징하여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 일조각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노종국 외, 2006 『대가야 들여다보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신종환 외, 2006 『대가야는 살아있다』, 대가야박물관

조원영, 2008 『가야, 그 끝나지 않은 신화』, 해안

2) 대가야 박물관

공립박물관으로 고령군에서 대가야와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전 시,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산동고분군 및 고령군 관내에서 출토된 대가야시대 유물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대가야역사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실 등 크게 세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상설 전시실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선사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펼쳐 보이 기 위하여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문화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유물 1,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의 구성은 크게 대가야의 여명, 대가야의 성립,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대 가야 이후의 고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고령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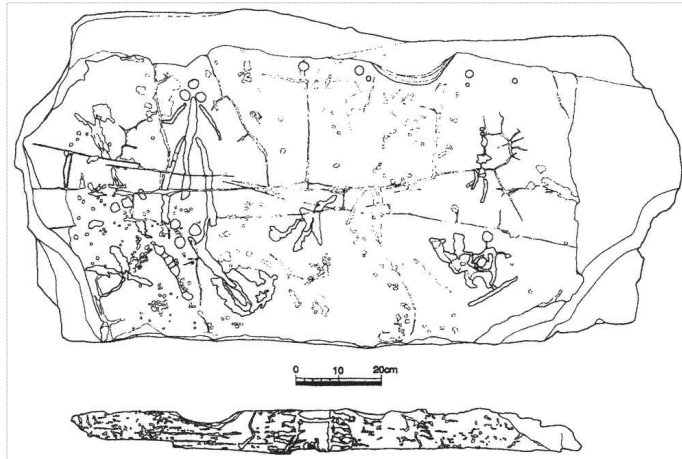
기획전시실은 연간 1,2회 정도 특정주제를 설정하여 기획전전을 개최하며, 2015년도 춘계답사 일인 3월 26일부터 3월 28일을 기준으로 ‘고문서로 옛 고령을 읽다-고령의 보물들-’이라는 주 제로 열두번째 기획특별전을 열고 있다. 야외전시실에서는 대가야시대의 움집과 창고, 제철로 유적이 재현되어 있고, 석등, 석탑, 불상 등의 불교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 44호분의 내부를 원래 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관람객들이 실물크기로 복원된 44호분 속으로 들어가,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모습, 부장품의 종류와 성격 등을 직접 볼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주목할 유물

야광조개국자 대가야왕릉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지산동 44호분의 주석실에서 출토된 야광조개국자는 일본과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 유물이다. 야광조개는 일본의 오키나와 열도 남단부에서 서식하는 패류로, 일본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각종 용기로 사용했다. 이 야광조개국자는 당시 대가야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증명하는 유물로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출토 당시 손잡이와 주걱부분 등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었다.

지산동 30호분 개석 암각화 지산동 30호분의 개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석실 개석의 측면에서는 신면형 암각화가, 주석실 바닥 아래 하부 석곽 개석의 윗면에는 독특한 형태의 인물상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대가야 시대의 고분 축조 과정에서 암각화가 새겨져 있던 돌을 채석해 온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것이 그보다 훨씬 후대에 조성된 대가야시대 무덤의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석실 개석 암각화의 신면형 내부에는 가운데에 가로 분할선을 그어놓고, 상부에 두 개의 性穴을 새긴 것이 확인된다. 하부석곽 개석 암각화의 경우, 암각은 크게 성혈과 선각을 조합한 독특한 형상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다수의 성혈의 관찰된다.



지산동 30호분 출토 암각화

대가야 토기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대가야양식 토기는 굽다리접시, 긴목항아리, 그릇받침, 뚜껑접시 등으로 대표되며, 부드러운 곡선미와 풍만한 안정감이 특징이다. 굽다리접시는 접시가 납작하고,八字 모양으로 벌어지는 굽다리에는 좁고 긴 사각형 구멍이 일렬로 뚫려 있다. 긴목항아리는 긴 목이 부드럽게 좁아들어 몸체부분과 S자형 곡선을 이루며 여러 겹의 정밀한 물결무늬가 그려져 있다. 바리모양그릇받침은 대야 같이 넓고 깊은 몸체에 여러 겹의 물결무늬와 술잎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고, 다리에는 세모나 네모꼴의 구멍이 나 있다.

금관과 금동관 가야 고분에서 금동관과 은관이 출토되었으나, 금관은 고령의 대가야에서 유일하게 출토되었다. 대가야의 왕이 쓰던 관은 다른 나라의 관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신라의 관이 나뭇가지와 사슴뿔모양인데 반해 대가야의 관은 풀잎이나 꽃잎모양이다. 주요 대가야 금동관으로는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과 지산동 30호분 2곽 출토 금동관이 있다.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중앙에 큰 세움장식을 배치하고 관테를 각이 지게 꺾었다. 관테와 세움장식을 6개의 못으로 고정하였고 좌우에 덧붙인 세움장식도 3개의 못으로 고정했다. 연속점무늬와 파도무늬를 새기고 사이에 대롱모양의 무늬를 첨가했다. 중앙과 좌우의 세움장식 꼭대기를 연꽃모양으로 장식했다. 지산동 30호분 2곽 출토 금동관은 매우 작는데 넓은 관테에 파도무늬와 연속점무늬를 축조기법으로 표현하였다. 3개의 연꽃모양 세움장식을 못 1개

씩으로 부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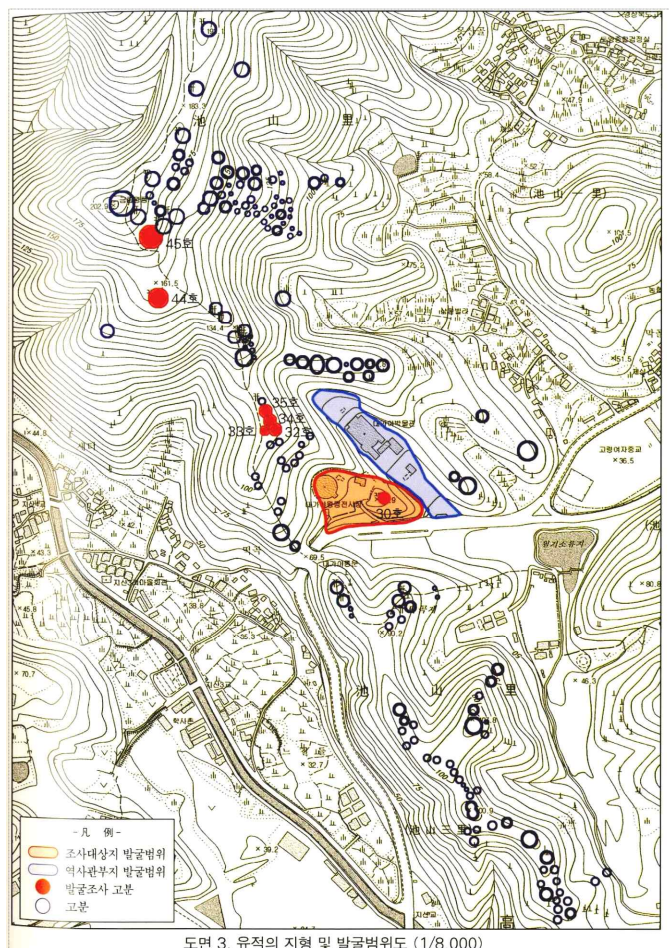
대가야의 무기와 갑옷 고리칼, 쇠창, 쇠도끼, 화살촉 등 많은 무기들이 고분에서 나왔다. 이들은 전투에서 직접 사용되기도 했지만 문헌 사람이 살았을 때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때문에 고리칼의 손잡이에는 금이나 은으로 용과 봉황, 넝쿨무늬, 거북등무늬 등을 화려하게 새겨놓았다. 쇠창 중에도 나무 자루를 쫓는 쪽에 은판으로 둘러 장식한 것도 있다.

갑옷과 투구는 전투할 때 사용되는 것이지만 평소에는 입은 사람의 권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는 작은 쇠조각을 연결하여 만든 것과, 대쪽같이 길쭉한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것이 있다. 또 요즘의 모자처럼 챙이 달린 투구도 있다.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도 작은 쇠조각을 연결하여 만든 비늘갑옷이 있고,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철판을 연결하여 만든 철판갑옷이 있다. 이밖에도 목이나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철판 가리개도 있다. 투구와 갑옷을 만들 때 쇠조각을 연결하는 방법은 쇠못이나 실, 가죽 끈 등을 사용했다. 대가야의 대표적인 갑옷과 투구는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되었으며, 이와 같은 갑옷과 투구는 신라보다 가야지역과 일본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어, 대가야와 왜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다.

3) 지산동 고분군

고령에는 지산동 고분군, 본관동 고분군, 고아동 벽화고분, 쾌빈리 고분, 도진리 고분군, 박곡리 고분이 있다. 지산동 고분군은 봉분의 규모, 대형 봉토분수, 유물의 양, 순장자의 수, 금동제 관모가 발굴된 점 등에서 가야지역 전체에 가장 월등한 고분군이다. 지산동 고분군은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일대에 분포하는데 고령읍을 감싸는 주산성에서 뻗어 내린 남주 능선과 가지능선 사면에 걸쳐 넓게 퍼져있는 대군집분이다. 번호가 매겨진 중대형 고분이 75개이고 그 외에 작은 봉토분이 200여 기 있다.

1930년대에는 600기 이상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 결



지산동고분군 분포도

과를 실시했는데 지산동 고분군에는 봉토가 남아 있는 고분 704기가 확인되었으며 봉토가 없는 고분까지 합친다면 1만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1906년 일본인 세키노(關野貞)가 첫 발굴조사를 하였고, 1963년 사적 제79호로 지정되었다. 1977년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가 합동으로 44호분과 45호분을 발굴조사하고 1978년에 계명대학교가 32호분~35호분을 발굴조사했다. 2007년에는 대동문화재연구원이 73·74·75호분을 발굴하였고 2013년에는 유적이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진정성(Authenticity)·완전성(Integrity) 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대형분과 중형분은 거의 능선과 가지능선에 입지해 있는데 산 아래에서 봤을 때 더 크게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산동 고분은 크게 돌널무덤(石棺墓 혹은 石箱墓), 돌덧널무덤(石槨墓), 돌방무덤(石室墳)으로 구분할 수 있다. 30호분, 32~35호분과 44, 45호분과 같은 중대형 무덤은 모두 돌방무덤에 해당하고 그 외의 소형 무덤, 순장곽은 돌널무덤이나 돌덧널무덤이다. 돌방무덤은 인근 지역인 성주, 대구, 부산이 길이 대 너비의 비율이 3:1 정도의 장방형인데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길이 대 너비의 비율로 보아 5:1 이상인 細長方形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고분이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거대한 봉토를 쌓은 점, 主室을 지하에 설치하고 그 옆에 副槨이나 殉葬槨을 설치한 다음, 묘역을 둘러싸은 원형 혹은 타원형의 護石을 쌓는 것을 ‘대가야식 묘제’라고 할 수 있다.

5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중소형 석곽과 봉토분이 급증한다. 4~5세기 전반에 중심고분군이 고령분지 내의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고분군의 묘지가 부족하거나 지배자의 묘제가 대형봉토분으로 바뀌며 지산동 고분군으로 이동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고령읍 주변 지역에서 그 이전까지는 지역별 양상을 보이던 토기가 모두 대가야식 토기로 바뀐다. 대가야가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 주변 지역에 영역확대를 했던 사실을 고고학적 발굴 성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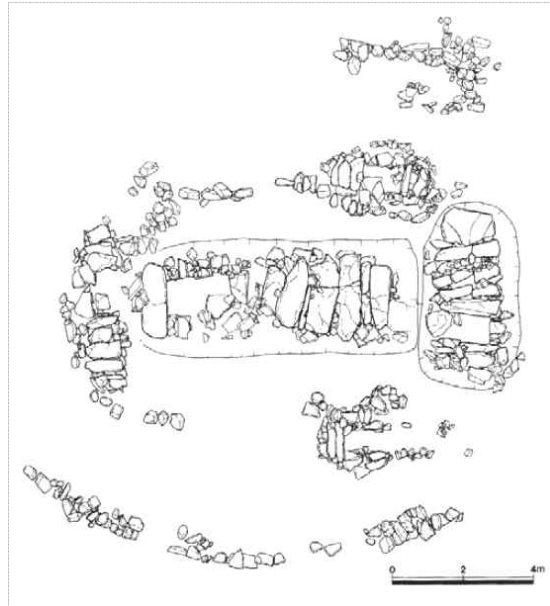
32NE-1, 32SW-1 호분

32호분 주변에서 발견되는 고분들은 소형 석곽분이지만 주능선 사면에 일정한 묘역을 갖고 있고 석실의 규모(내부 공간이 5m³ 이상, 金鍾徹 분류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호석도 있고 출토 유물도 많다. 32NE-1호분은 32호분 동북쪽 호석에서 1.4m 떨어져 있는데 이 고분의 남쪽 봉토 일부를 32호분이 덮고 있어 32호분 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판단된다. 주능선에 자리하고 있고 호석이 있으며 부장품으로 銀象嵌唐草文 環頭大刀, 철검, 소도, 철촉 등 철기류와 김제이식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당대의 가장 높은 지도자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32SW-1호분은 32호분과 33호분 사이의 남쪽 지대에 위치하는데 33호분의 호석이 이 호석의 일부를 끊고 돌려져 있어 33호분 보다 먼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개고배, 뚜껑 및 철촉, 착형철기 등 소형 철기류만 출토되었는데 석곽의 상단부가 지표에 일부 노출이 되어있어서 도굴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장품의 종류나 배치상태로는 피장자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석곽의 구조와 규모가 32NE-1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같은 시기의 지배층 분묘로 볼 수 있다.

35호분

대가야의 주고분내 최초로 수혈식석실로 조성된 것이 35호분이고 축조시기는 5세기 1/4분기로 추측된다. 35호분은 34호분과 함께 瓢形墳으로 호석이 있고 주변 지형을 깎아 고르게 하여 봉분이 높아 보이게 하였다. 다른 중대형 고분과 마찬가지로 세장방형이고 부곽, 순장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5호분 직후 조성된 34호분에서는 순장석곽 1기가 발견되는데 고충 초기 출현단계에서 순장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4호분과 35호분 사이의 연결석곽의 피장자는 영구치와 유치와 함께 있는 5세 경의 남자아이로 판명되었다. 이 석곽에 금제이식, 호박구슬, 곡옥, 유리구슬 목걸이, 철검, 철촉, 화살통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으므로 지배자였던 이들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13> 30호분 배치도

가야의 묘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순장이다. 아라가야는 수혈식 석실 1기만 축조하고 한 묘실 안에 주인공과 순장자를 함께 매장하는 主槨殉葬을, 금관가야는 주인공을 안치하는 주곽과 부장품을 넣기 위한 별도의 부장곽을 갖춘 묘제에 나타나는 主·副槨순장을 했다. 대가야의 것은 주피장자의 주실 외에 별도의 순장묘곽을 가지고 있는 殉葬槨殉葬으로 순장자가 자신의 묘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유형들과는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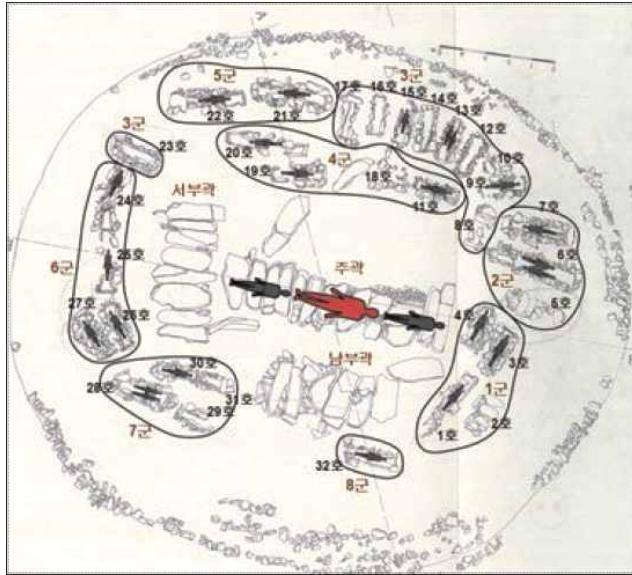
30호분과 순장

30호분은 35호분이 있는 주능선에서 가장 낮은 능선상에 있다. 장경 18m, 단경 10m의 타원형 봉토로 장축을 직교상으로 두고 조성되었다. 35호분 직후에 축조되었으며 대체로 35호분과 비슷하나 봉분 구획성도와 호석의 구획축조, 지산동 고분군에서 최초로 등장한 부장곽과 순장곽이 새로운 요소다. 순장곽은 모두 5기로 주실 바닥에 1기, 동쪽(30-1)에 2기, 북쪽(30-3)에 1기, 남쪽(30-2)에 1기이다. 발치쪽인 서남 단벽 쪽에 순장자 1명, 부실에 1명, 순장곽에 5명으로 도합 7명이 순장되었다. 지산동 30호분 개석 암각화는 개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석실 개석의 측면에서는 신면형 암각화가, 주석실 바닥 아래 하부 석곽 개석의 윗면에는 성혈과 선각을 조합한 독특한 인물의 암각화가 발굴되었다.

순장곽으로 생각되는 남곽(30-2호)에서 대가야식 보주형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이 금동관은 피장자가 착장한 채 매장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남은 두개골로 보아 1~5세의 유아 혹은 6~11세의 소아로 판정되었다. 이 피장자는 주피장자의 노비로서 금동관을 쓸 수 있는 다른자를 대신하여 추정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김세기는 남곽에 호석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피장자의 아들이거나 손자라고 주장한다.

44호분

44호분은 지산동 고분군 중에서 최대 규모이자 최대 위계의 고분이다. 외부는 지름이 25-27m인 타원형의 봉분이고, 내부는 1주곽 2부곽의 대형돌방 3기를 32개의 소형석곽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주곽 중앙에 있는 목곽 안에 주인공을 안치하였는데, 도굴이 심하여 성복유물을 확인할 수 없으나 대도를 착용한 것이 확인되어 주피장자는 왕으로 추정된다. 그 목곽 바깥에 주인공의 머리와 발치에 각각 순장자를 매장하였다. 두 부곽에 서는 대가야 양식의 토기류에 한정



44호분 평면도

된 껌문거리들이 발견되었고 각각 순장자를 안치한 흔적은 있으나 그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소형석곽 32기의 대부분은 한 널에 한 사람이 매장된 1인석곽이나, 2인이 합장된 석곽 5기와 3인이 합장된 석곽도 발견되었다. 확인된 인골 수는 모두 27구이고,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립된 석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5기이므로 44호분에는 32인 이상이 순장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축조 시기는 5세기 후반대 중경으로 추정된다.

45호분

45호분 또한 44호분과 건립시기가 비슷한 만큼 외부 구조와 내부 석곽배치방식이 비슷하다. 44호와 같이 타원형의 봉분이지만, 경사가 급한 남쪽에는 2,3단 정도 계단식으로 암반을 깎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부 구조는 1주곽(제 1호 석실) 1부곽(제 2호 석실)의 대형돌방 2기를 11기의 소형 돌덧널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주곽 내부에서 발견된 관못 꺾쇠를 통해 주인공은 나무널에 안치되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호분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점, 출토 유물의 현상 등으로 보아 주인공은 여성이며 대가야 왕비로 추정할 수 있다.(김용성, 2014) 또한 주인공의 머리와 발치에서 금제귀고리와 유리제 목걸이를 패용한 순장자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금제귀고리와 유리구슬 목걸이가 부곽 동북쪽 끝의 인골 1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주곽의 주인공의 발치에 은제이식을 착용한 순장자 1명이 더 발견되었는데, 주변에서 금동관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김용성, 2014) 11기의 소형석곽 중 허장된 2기를 제외한 나머지에 각 1인씩 안치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이 고분의 순장인 수는 적어도 13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가야고분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금제이식과 금동관모가 부장되었고 대가야 양식의 토기가 비교적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 점이 대가야 고분군의 우월성을 논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렇듯 44, 45호분은 앞서 축조된 30, 32, 35호분이나 73, 74, 75호분보다 고분의 규모, 순장자의 수, 출토된 부장품의 수에서 월등하다. 이는 44, 45호분이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축조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중국사서 중 거의 유일하게 가라의 사신 기록을 남겨둔『남제서』동이전을 통해 그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南齊書』 권58 列傳 제 9 加羅國)

加羅國은 三韓의 종족이다. 建元 원년, 국왕 荷知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이에 조서를 내려 가로되 “널리 헤아려 비로소 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夷가 두루 덕에 감화됨이라. 加羅王 荷知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폐백을 받들고 관문을 두드렸으니, 輔國將軍本國王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서기 479년, 가라국왕 하지는 남제로부터 보국장군본국왕의 벼슬을 제수 받았다. 이는 당대 가야국이 독자적으로 남제와 교역하고, 제나라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한반도 내에서 그 세력이 컸다는 것을 방증한다. 남제서의 기록을 통해 5세기 중후반에 이미 가야국은 백제, 신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번성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대가야는 문헌상 나타나는 영역 및 세력의 확장과 고분에서 발견되는 순장의 형태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44, 45호분 직전에 조성된 30~30호분에서는 순장자가 10명이 넘지 않고 정확한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44, 45호분에서는 순장자가 주피장자의 죽음 이전에 정해졌고 기능별로 순장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많은 양의 금제관식의 위세품과 무기를 부장했다. 대가야가 강력한 세력을 떨쳤다는 것을『남제서』의 기록과 44, 45호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3호분, 74호분, 75호분

2007년 대동문화재 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지산동 73, 74, 75호분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73호분은 1기의 주곽과 1기의 부곽을 깊게 굴착된 하나의 묘광 안에 축조한 완전 지하식 고분이다. 묘광벽과 주부곽 사이에는 돌을 채워 보강한 목곽묘의 형식이다. 축조시기는 5세기 2/4분기로,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74, 75호분과 같이, 주곽과 부곽을 이격상태의 T자형으로 배치하였다. 묘광을 축조할 때에는 분담작업을 위해 경계를 나누는 방사상 구획축조방식과 고대 대규모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흙둑기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흙주머니(土囊)를 대량으로 사용한 흔적이 묘광 상층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주곽 내 목관의 주피장자가 착용한 단봉문환부대도와 곡옥부경식으로부터 주인공이 남성임을 알 수 있고, 주인공 발치에서 발견된 3조의 경식은 순장자 3인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주곽과 엇갈린 방향으로 놓인 부곽 하부에는 주로 대형토기가 출토되었고 그 위에 순장자 2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부곽을 둘러싸고 있는 3기의 소형석곽 중 북순장곽과 남순장곽에는 각기 두향이 반대인 인골 2구가 있고, 서순장곽에는 인골 1구와 금동관식이 발견되었다.

73호분이 산등성이에 위치하는 데 비해 74호분은 산등성이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다. 척사면에 입지함에도 주석실의 장축방향이 능선 주향과 직교하는 것은 당시 수혈식석실의 등고선 방향 원칙과 다른 예외적인 사례지만, 앞서 축조된 73호분의 장축방

향을 의식한 의도적인 배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부곽은 주곽 서쪽에 위치하여 두 곱이 T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곽 양측에 각각 할석, 판석을 세워 만든 소형 순장곽 2기가 위치하고 있다. 주곽과 부곽에 비해 상태가 온전한 소형 순장곽에서는 각종 토기류와 금동귀고리가 출토되었다.



지산동 73호분 순장자 복원모습

75호분 역시 주곽과 부곽이 직교로 배치되어있으며 석곽묘 5기, 목곽묘 2기, 도합 7기의 소형묘가 주곽을 둘러싸고 있다. 이 고분 봉분 내에 축조된 3기의 소형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봉분 내 순장곽으로 볼 수 있으며 주부곽 흙독의 내부 성토 완료 후 축조된 것으로 매장일 가능성이 크다. 3기 중 하나의 소형묘에서 철제 관식이 발견되었다. 봉분 내 성토층에서는 우마 등 큰 동물의 매장처로 추정되는 대형 위석수혈이 발견되었다. 어떤 동물을 묻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순장보다는 봉분 축조와 관련된 의례의 결과로 추정된다. 73호분과 마찬가지로 방사상 구획축조방식과 흙독기법, 대량의 토당이 사용되었다. 주곽에서 출토된 꺾쇠와 관정을 통해 목곽 내에 주인공이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발치에 있던 1조의 경식을 보아 순장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부곽 내에 2인, 각 묘에 1인을 포함하여 75호분에는 총 10인 정도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봉분 내 순장곽까지 포함하면 13인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 嶺南埋藏文化財研究員, 2006 『高靈 池山洞古墳群Ⅱ』
 金鍾徹, 1992 「大加耶墓制의 編年研究 : 高靈池山洞 古墳群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9, 계명대학교
 曹永鉉, 1999 「大加耶 竪穴式石室墳內 副槨의 性格과 築造方式」 『계명사학』 23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박천수, 2006 『土器로 보는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노중국 외, 2012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김용성, 2014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순장」, 『야의 고고학』 1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4) 고대의 순장 풍습

사상적 정치적 배경

순장은 일반적으로 ‘어떤 죽음을 뒤따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주된 시체와 함께 묻는 장례습속’이라 정의되고 있다. 타인의 죽음에 따르는 행위와 그러한 제의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들은 죽음을 현세와 내세의 단절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라 생각하였다. ‘순장이라는 풍습의 기원은 죽은자의 소유물을 전부 죽은 자에게 주어 사후 생활에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죽은 후의 삶에서 현세의 삶을 이어간다는 의미의 繼世思想’으로 피장자의 죽음을 이해한다면 온갖 생활용품들을 함께 묻는 후장과 그와 종속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장은 ‘내세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사람의 희생’이 그 기본이 되는 장례풍습이라 할 수 있다.

순장은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확립된 고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의 존재가 그 원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희생’은 소위 절대권력이 이데올로기로서 정당화되지 못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절대권력이 아니었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권력의 유지를 위해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권력의 권위를 과시하고 위압하려 했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순장이 ‘세계사적으로 복합사회 혹은 고대 국가 형성 이후에 점차 사라진’ 풍습이라는 점이 이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순장의 조건

순장은 제의를 위한 ‘사람의 희생’의 한 방식이며, 내세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고고학적 자료로서 범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확인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영적 혜택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순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영원한 삶 또는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종교적 신념,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신분의 계층화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제의를 위한 제도적인 ‘사람의 희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희생’을 동시에 매장하여 무덤을 완성함으로써 순장이라는 제의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성준, 2009)

위 글에서 알 수 있듯, 순장은 동시성과 강제성, 종속성이라는 조건을 갖는다. 여기서 ‘동시성이란 복수의 순장자들과 주피장자가 시간차 없이 동시에 매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무덤에 추가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장묘로 인정하기 어렵다. 강제성이란 그러한 ‘사람의 희생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순장을 위해 공격을 당해 죽음을 맞이한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사도 있다. 순사의 경우 대개 충정심에 의한 ‘자살’이긴 하지만 순장제도가 규범화 되어있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결코 자율적인 판단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제도적 규범화가 이미 인간의 행동양식에 구속력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순장은 강제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성이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차별적인 신분질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피장자와 함께 묻힌 순장자들은 그 피장자에게 종속되어있던 사람들로 ‘신분질서 피라미드상 어디에 위치하던 무덤의 주인공보다는 하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성 · 강제성 · 종속성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닌 깊은 사회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특성들이다. 무엇보다도 내세적 이데올로기가 그 근본적인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사람의 희생’에 대한 정당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받아들여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순장의 프로세스는 내세적 이데올로기와 차별화된 신분질서(종속성)가 존재하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제도적 규범으

로서 ‘인간의 희생’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강제성)하여야 하고, 여기에 주피장자와 동시에 매장하는 제의방식(동시성)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장자의 사회적 성격

현재까지 한반도의 고대국가에서 순장이 행해졌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입증된 국가는 신라와 가야이다. 대다수의 가야고분과 신라고분이 발견된 가운데, 가야의 경우에는 문헌적 자료가 없지만 신라의 경우 지증왕 3년(502)에 ‘순장을 금지한다’는 기록이 『三國史記』에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국가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을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권력을 위시하려 했던 사회적 풍토에서 순장이 행해졌다는 설명에 기반하면 ‘한반도에서 신라나 가야보다 국가체제가 일찍 정비되었던 고구려와 백제에서 순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순장자는 제물로써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 내지는 개인적 호소가 순장의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존재로서 노예나 전쟁포로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의 고고학적 자료의 증가를 통해 시첩, 무사, 시종, 시녀 등의 근시자로 이해되고 있다. 순장자의 사회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차별적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한 종속성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강제성이 제도적 규범화라는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다면, 일방적인 신분제도상 ‘우세 대 열세’가 아닌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물로써 ‘사람의 희생’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시자의 희생’은 또 다른 영적 혜택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 주용립, 1988 「한국 고대의 순장연구」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私學論叢』, 지식산업사
- 이성준, 2009, 「한반도 고대사회에서 순장의 사상적 배경과 그 성격」 『대가야의 정신세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曹永鉉, 2009 「高靈 池山洞 第73·74·75號墳 發掘調査」, 『대가야의 정신세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이성준 외, 2010, 『1500해 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노중국 외, 2012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김용성, 2014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순장」, 『야의 고고학』 1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6) 그밖의 유적

고아동 벽화고분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963년 처음 발견되어 사적 165호로 지정되어 있다. 玄室, 羨道로 구성된 橫穴式 석실분이다. 전체 규모나 축조구조, 벽면처리 등을 통해서 고분의 축조시기를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한다. 서쪽 관대에 남자가, 동쪽 관대에 여자가 피장되었다. 이와 다른 2기의 관대가 현실 내에서 확인되어 이후 추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벽화의 연화문을 보면 백제시대의 것보다는 오히려 신라시대의 것과 닮아 있어 추가장 당시에 새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벽화는 현실의 천정과 벽면, 연도의 천정에 그려져 있다. 발견된 당시 이미 도굴된 후였기

때문에 잔존하는 부장품은 적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벽면의 회칠이 탈락하면서 벽화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벽에는 蓮花文이 그려져 있는데, 비교적 형태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연도 천정에 있는 것이다. 벽화는 분홍색, 녹색, 갈색, 흑색 등으로 채색되어 있다. 현재 벽화고분은 몇 개 남아 있지만 가야시대의 것은 고아동 벽화고분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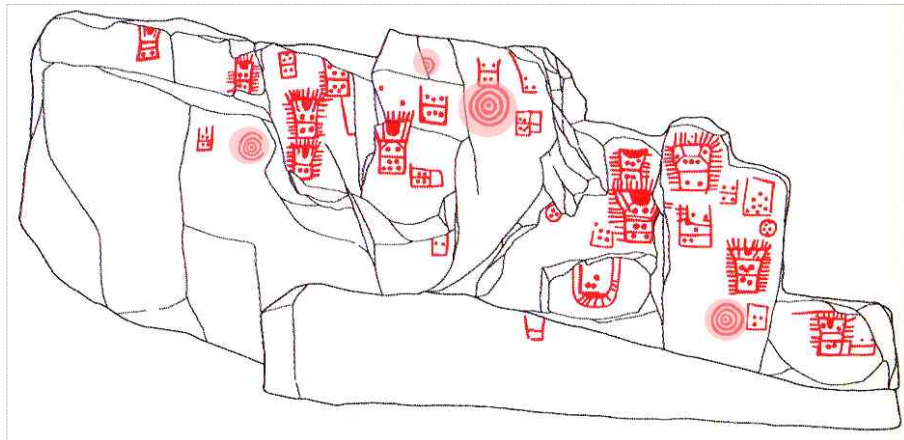
[참고문헌]

계명대학교, 1985 『高靈古衙洞壁畫古墳實測調査報告』, 啓明大學校出版部

조원창, 2008 「연화문으로 본 고령 고아동 대가야 벽화고분의 추가장 시기 검토」 『백제문화』 39

장기리 암각화

장기리 암각화는 고령군 고령은 장기리(구 개진면 양전동)의 알터마을에 있다. 1971년 발견되어 암각화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보물 제605호이다. 이 암각화가 청동기 시기의 것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지만 연구자에 따른 차이는 있다. 높이 3m, 길이 6m의 암벽에 높이 1.5m, 길이 5m 정도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일부는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된 곳도 있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

대체로 동심원과 장방형의 기하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심원은 중앙부 상단에 1개, 중앙부 상단 왼쪽에 1개, 좌측부 하단에 1개, 우측부 하단에 1개로 총 4개가 그려져 있다. 이 동심원은 3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울산의 천전리 암각화, 함안 도항리, 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등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동심원은 태양의 상징이라는 견해가 대체로 우세하지만 세부적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역시 차이가 있다. 장방형의 기하문에 대해서는 인면형, 신면형, 검파형, 방패형 등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러한 문양은 해석은 다양하지만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고대인들이 암각화에서 집단 의례를 행하였으리라 추정한다.

[참고문헌]

고령군대가야박물관 ·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한국암각화학회, 2008 『高靈地域의 先史 古代社會와 岩刻畫』

대가야박물관, 2008 『高靈의 岩刻遺蹟』

이상목, 2009 「고령 암각화가 보여주는 정신세계」 『대가야의 정신세계』(노중국 외)

5. 합천 해인사와 월광사지

1) 해인사의 역사

해인사 창건

海印寺는 의상의 화엄10찰 중 하나로 팔만대장경판을 봉안한 法寶寺刹이다. ‘海印’은 『화엄경』의 ‘海印三昧’에서 빌려온 것으로, 창사의 이념이 화엄 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金堂을 毘盧殿이라 하고 毗盧遮那佛을 모신다.

최치원이 900년(효공왕 4)에 지은 「伽倻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에는, 802년(애장왕 3) 神琳의 제자인 順應이 가야산에 해인사를 짓기 시작하자 聖穆太后가 이를 크게 도왔다고 전한다. “이 때 성목태후께서 우리나라에 어머니로 군림하시면서 佛敎徒들을 아들처럼 육성하였다. 소문을 듣고 공경하시며 기뻐하시어 날짜를 정하여 歸依하시고, 좋은 음식과 예물을 내리셨다”고 했다. 순응이 죽은 뒤에 그의 제자 利貞이 절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한편 「伽倻山海印寺古籍」에는 애장왕 2년에 왕후의 등창을 순응·이정이 고쳐준 인연으로 절이 창건되고 신라 왕실에서 田 2천결을 시납하여 후원했다는 설화적인 내용도 전한다.

해인사는 창건 이래 여러 차례 重建되었다. 「海印寺重修記」에 따르면 1483년(성종 14) 世祖의 妃 貞熹王后가 해인사 중건을 마무리하지 못하자 이후 仁粹王妃와 仁惠王妃가 學祖大師로 하여금 3년간(성종 19~21)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고 한다. 1488년 인수왕비와 인혜왕비가 미포를 내어 해인사 장경판당 30간을 비롯한 사찰 내의 여러 건물들이 대대적으로 보수되었다. 1489년에는 다시 미포를 내고 이듬해에 비로전을 대적광전으로 고쳐짓고 불상과 보살상에 황금을 입혔다. 1695(숙종 21)의 화재를 시작으로 이후 잦은 失火로 중건을 반복하였다. 다섯 차례의 화재와 중건 이후 순종 17년에는 수천 간이 불타버린 뒤 영월·연월 두 스님이 중건하였으나 이전의 규모를 완전히 되찾지 못하였다.

신라 말 해인사와 사회 상황

신라 말 초적 활동으로 인한 극도의 사회 혼란과 해인사 田券의 존재는 9세기 말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490년(성종 21) 해인사 비로전 중창 당시 대들보 위의 깊숙한 곳에서 해인사전권 43권이 발견되었다. 문서가 숨겨진 장소가 결코 정상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권을 일부러 보관하려 했다고보다는 어떤 사정에 의해 감추어졌다가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43건의 전권은 878년(헌강왕 4)에서 895년(진성왕 9)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었다.

전권이 쓰인 약 20년 동안 해인사는 방대한 양의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건의 전권 중 상당수가 신라 왕실이나 귀족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전권에 비교적 넓은 범위의 토지를 가리키는 말인 ‘田庄’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사찰이 빈궁한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해인사가 신라 왕실의 지원으로 창건되었다는 점

이나, 혜성대왕으로 추대된 위홍의 원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는 토지 매입이 아닌 기진의 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9세기에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유망농민이 증가하고 822년 김헌창의 난 이후 신라 중앙정부의 집권력은 약화되었다. 이처럼 집권체제가 위기에 놓이자 왕실과 귀족들은 지방에 있는 그들 자신의 대토지를 경영할 능력을 상실하여 사원에 전장을 기진한 것이다. 최치원이 895년에 지은 「海印寺妙吉祥塔記」에는 신라 사회의 혼란상을 “전쟁과 흉년 두 재앙이 西國(중국)에서 멈추고 東國(신라)으로 건너와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지 않은 곳이 없으니,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즐비하게 널려 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사회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889년(진성왕 3) 무렵부터였다. 『삼국사기』 진성왕 3년조에는 “국내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아 창고자 비고 재정이 궁핍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 독촉하니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초적과 군도의 약탈은 불교 사원에까지 미쳤다. 신라 통일기 사원은 왕실과 귀족의 후원과 함께 재화와 부의 상징이었으므로 약탈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였다. 「해인사묘갈상탑기」에서 “사람들이 향배를 잊고 행동하는 것이 난폭한 맹수가 같다”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농민들은 더 이상 종교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무찰별적으로 습격과 약탈을 저질렀다.

해인사의 경우 8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혼란은 잦아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지방의 부호들 역시 초적의 습격과 약탈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해인사를 비롯한 사원이 자체 무장력을 갖추어 습격에 대비했듯이 지방사회의 유력자들도 노비나 그들 영향권 내의 주민을 무장시켜 대처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나온 지방관이나 귀족은 아니었으나 주도적으로 무장 세력을 갖추어 주변에 성을 쌓아 自保·自守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집권력을 잃은 틈을 타 각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무장 세력들도 다른 초적의 무리를 흡수하면서 조직의 체계가 갖추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적의 활동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지방 유력세력들과 초적을 흡수한 무장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상태였고, 그들의 지지기반을 위해 토착세력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신라 왕정이 무력화되고 후삼국 분립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들 세력은 사원의 종교적 신성을 지켜줌으로써 지방사회에서 종래 지방관을 대체할 만큼의 세력권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해인사의 전각과 유물

大寂光殿은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모신 법당을 말한다. 이 전각은 화엄종의 맥을 잇는 사찰에서 보통 본전으로 건립하며, 『화엄경』에 근거한다는 뜻에서 화엄전, 『화엄경』의 主佛인 毗盧遮那佛을 봉안한다는 뜻에서 비로전, 그리고 『화엄경』의 蓮花藏세계가 대정적의 세계라는 뜻에서 大寂光殿이라고도 한다.

대적광전은 원래 비로전이라 하던 것을 조선 성종 19년, 인혜대비와 인수대비의 시주로 학조대사가 공사를 감독할 당시 대적광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현재 건물은 수 차례 화재가 일어나 소실된 뒤에 조선 말기 고종 8년에 다시 건축된 것이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포식 팔

작지붕건물의 형태를 가지며, 長方形 평면으로 세워져있으며 정면의 柱間 크기는 비교적 크게 잡고 있어 건물의 전체형태를 보면 옆으로 퍼진 느낌이다. 龍溪寺에서 옮겨온 비로자나불과 문수, 보현보살의 비로자나삼존불과 존명 미상의 4구의 보살상, 2구의 지장보살상이 좌우로 대불 삼존에 이어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과 비로자나불이 함께 모셔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주변의 사찰들에서 옮겨왔기 때문이다.

藏經板殿 정면 15칸, 측면 2칸의 우진각지붕 건물로 국보 제52호이다. 같은 양식과 규모의 두 건물이 남북으로 지어져 있는데, 남쪽 건물은 修多羅藏, 북쪽 건물은 法寶殿이라고 한다. 건물은 큼직한 부재를 간단한 방식으로 가구하였고 세부 역시 간결하여 판고에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킬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적인 의장을 가하지 않았다. 건물에 사용되었던 기와에 ‘弘治元年’이라는 명문이 있어 전각의 건립 연대를 1488년(성종 19)으로 추정한다. 이 해인사장경 판전에는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을 보관하고 있어, 습도와 풍향 등이 경판 보존에 좋은 조건으로 자연스레 유지되는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吉祥塔 통일신라시대 전형의 석탑 양식을 따른 탑으로,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창궐한 도적떼로부터 사원을 지키다 죽은 승려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이다. 길상탑은 두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층 기단, 상층 기단 모두 1매의 통돌로 조성되었다. 두 기단이 각각 둘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례적인 예인데, 이는 신라 말,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탑의 크기와 점유 면적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3m 정도의 석탑의 높이는 탑 건립에 唐尺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6년에 벽돌에 음각된 塔誌 4매와 소탑 157기가 도굴되었다가 압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이다. 최치원이 지은 것을 포함한 4매의 탑지는 원래 각각 따로 봉안하려 했지만 당시 사정상 이곳에 모아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해인사묘길상탑기」로 통칭된다. 이 탑지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통일 신라 말기, 체제파탄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로 당시 왕실의 지원으로 부와 재화의 상징이었던 불교 사원들이 습격을 받았던 사회적 상황을 추측할 수 있으며, 길상탑은 진성왕대에 혼란한 상황에서 도적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56명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895년(진성왕 8) 건립한 것이다.

學士臺 응진전 서쪽의 대지로, 큰 전나무가 있는데 최치원이 지팡이를 거꾸로 꽂은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해인사에서 만년을 보낸 최치원 때문에 생겨난 전설이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비로자나불상은 8세기 중엽에 출현하여 9세기 중엽 이후에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했다. 光名, 寂光 등으로 해석되는 ‘Virocana’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진리를 상징하는 법신불을 말한다. 법신불은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에서 발전한 개념이나, 智拳印을 한 모습은 밀교의 大日如來와 관련되고, 화엄사상과 밀교가 융합되는 불교사적 배경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은 현존하는 最古의 목조불상으로 동글동글한 螺髮,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옷주름의 형식과 지권인으로 다른 동시대의 불상과 차이가 있다. 향나무로 만들었으며 여러 개의 나무를 접한 접목조기법이 사용되었다. 불상 내부에서 71건 156점에 달하는 고려와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候鈴筒과 저고리, 보자기 등의 중요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2012년 10월에 보물 제1777호로 지정되었다.

2005년 7월 4일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改金과정에서 腹藏 묵서명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誓願大角干主等身○彌佛 右座妃主等身○○ 中和三年癸卯此 像夏節柒金着成”으로 중화 3년 계묘년(883), 대각간의 불신불과 부인의 등신불 두 구를 조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또 하나의 불상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특이한 것은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이 법보전 불상과 크기, 착의법, 표현양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이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동시에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과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은 제작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를 통해 조성 연대를 분석한 결과,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은 745~955년, 대적광전비로자나불은 950~1090년으로 조성에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 두 불상이 동시에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한 발원자는 묵서명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발원의 대상은 大角干主과 妃主를 의미한다. 당시 해인사가 북궁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과, 이 당시 비슷한 사례의 불사가 신라 왕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제작이 신라 왕실과 연관된다고 추정된다.

원당암

願堂庵은 해인사의 부속암자이다. 802년(애장왕 8) 해인사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장을 창건하여 鳳棲寺라고 명명했다. 애장왕이 가야산에 임시로 작은집을 지어 절 공사를 독려하고 정사를 돌보던 장소라고 한다. 봉서사는 훗날 신라 왕실의 願刹이었다고 하여 원당암으로 이름이 바뀐 채 알려져 있다.

원당암에는 보물 제518호인 점관암의 다층석탑, 석등 등이 있다. 다층석탑은 탑신부가 점관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석탑이다. 높이는 약 2.4m이며, 바닥돌은 화강암 널돌 3장으로 3단을 쌓았고 위에는 점관암으로 만든 받침돌을 얹었다. 아래 받침돌은 모두 24개의 연꽃무늬로 장식되어있고 가장 윗받침돌은 모두 32개의 연꽃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윗받침돌 위에는 탑신부가 놓여있지만, 현재 몸돌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지붕돌만 10층으로 쌓여 있다. 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로,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청석탑의 선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韓國佛敎研究院, 1975 『韓國의 寺刹 7(海印寺)』, 일지사

하일식, 1997 「해인사전권과 묘길상탑기」 『역사와 현실』 24

김상현, 2006 「9세기 후반의 해인사와 신라 왕실의 후원」 『신라문화』 28

이숙희 2006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 250 · 251

2)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초조대장경판이 불타버려서 다시 대장경을 새겼다고 하여 ‘재조대장경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명칭은 ‘해인사대장도감판’이다. ‘대장경’이라는 말은 6세기 말

중국 隋에서 유래한다. 인도에서는 원래 3藏(經·律·論)이라고 불리던 佛典을 총집성한 것을 중국에서 대장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여러 문헌들이 베껴지면서 전래되어 오다가 최초로 목판에 새겨진 대장경판이 983년에 나온 중국의 蜀版大藏經이다. 이 뒤를 이어 1011년 고려의 현종이 대장경판을 새겨 부인사에 둔 것이 우리나라에서 대장경판을 새긴 최초의 예이다. 현재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대장경은 초조대장경판이 아니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인 1251년에 완성된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남아 있는 대장경에 이르게 된다. 먼저 고려 현종 대의 대장경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1011년(현종 2)에서 1087(선종 4)까지 76년에 걸쳐서 제작되었다. 당시 완성된 대장경의 규모는 570질, 5924권으로 宋의 촉판대장경보다도 876권 더 많았다. 초조대장경 안에는 거란의 문헌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거란족도 초조대장경판이 완공되기 23년 전에 그들만의 대장경을 조조했으며, 1055년(문종 17)에는 고려왕실로 대장경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조대장경은 1233년(고종 19)에 몽고족이 침입하여 불살라버리고 말았다.

문종의 넷째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은 속장경을 彫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14개월 간 송나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3,000여 권의 문헌을 수집하고 귀국하였고, 왕명을 따라 홍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였다. 속장경조작업은 1092년에 시작하여 의천이 입적하기 2년 전인 1100년까지 9년 간 진행되었다. 속장경판이 어디에 봉안되고 있었고, 어떠한 경로로 소실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속장경 간본 상당수가 현재 일본 東大寺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국내 송광사에서 경판의 일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속장경은 팔만대장경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초조대장경이 불타 없어진 지 5년이 지난 어지러운 국내 상황 속에서 이규보는 다시 대장경 각판을 조조할 것을 기고했다. 그리하여 1236년(고종 23)에 본사는 강화, 분사는 남해에 두는 대장도감이 다시 설치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경판의 종류와 권, 수는 대장목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경판의 종류는 1,516종, 권수는 6,815권, 경판의 수는 82,258판이다.

대장경판은 白華 즉 자작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들었다. 이를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조각을 낸 후 소금물에 다시 삶은 뒤, 그늘에서 말리고 대패질을 한 후, 경문을 붓으로 쓰고, 그에 따라 새긴 것이다. 두 끝에는 각목으로 양 끝에 붙여 뒤틀리지 않도록 하고, 전체 판 위에도가 가볍게 옷칠을 하였고, 네 모서리에는 구리장식을 달았다.

[참고문헌]

韓國佛敎研究院, 1975 『韓國의 寺刹 7(海印寺)』, 일지사

3) 월광사지

야로면 월광리에 있다. 현재는 1970년경에 세운 월광사가 있으며 사지 내에 남아 있는 석탑의 조각수법으로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합천군 佛宇條에는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562년(진흥왕 23)에 멸망한 후 월광태자가 승려가 되어 가야산 아래 월광사를 창건했다고 해서 월광사라고 한다는 전설을 전한다.

월광사지에는 동서로 배치된 쌍 탑, 월광사지 삼층석탑이 있다. 두 석탑은 2층 받침돌 위에 3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린 모습으로, 받침 부분인 기단부는 규모에 비해 많은 돌을 사용하여 조립하였다. 특히 두 석탑 모두 위 아래층 받침돌의 덮개돌을 8장의 넋돌로 구성한 것은 보기 드문 수법이다. 이 석탑은 몸돌에 비해 아래층 받침돌이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을 주지만, 전체의 균형은 잃지 않아 보인다. 각 세부의 결구가 명확하고 돌을 가지런히 잘 다듬어 쌓은 수작의 석탑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韓國佛敎研究院, 1975 『韓國의 寺刹 7(海印寺)』, 일지사

[참고] 석탑, 불상의 세부 명칭

